

중국현대문학과 우리 말 번역

—1980, 1990년대를 위주로

金會峻*

目 次

1. 머리말
2. 한글 번역 중국현대문학 관련 서적 상황
3. 번역의 문제점
4. 맺음말
5. 참고문헌
6. 한글번역판 중국현대문학 관련 서적

1. 머리말

1917년 胡適와 陳獨秀가 각각 〈文學改良芻議〉 과 〈文學革命論〉 을 발표하여 중국문학의 대전환을 주장했다 이후 錢玄同·劉半農·傅斯年 등의 이론적 호응과 胡適·沈尹默 등의 초보적 창작을 거쳐 마침내 1918년 魯迅의 〈狂人日記〉 가 발표되었고, 이로써 중국문학은 이전의 고대문학에 비해 ‘표현이 철저하고 격식이 특별한’ 전혀 새로운 문학 -- 현대문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¹⁾

중국현대문학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양백화의 번역을 통해서였다. 양백화는 1920년 11월 《개벽》 에, 1920년 9월에서 동년 11월까지

* 부산대 중문과 부교수

1) 魯迅은 〈中國新文學大系 小說二集 導言〉 에서 “여기에[《新青年》에] 창작 단편소설을 발표한 사람은 魯迅이다. 19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狂人日記〉 〈孔乙己〉 〈藥〉 등이 잇달아 출현했는데, ‘문학혁명’의 성과를 나타내 준 셈이다. 또 당시 ‘표현이 철저하고 격식이 특별하다’ 고 여겨져 일부청년 독자의 마음을 상당히 격동시켰다.” 라고 말한 바 있다. 迅 選編, 《中國新文學大系 小說二集》, (影印本, 上海 : 上海出版社, 1980), P.1.

일본의 《支那》 창간호에서 3호까지 연재된 青木正兒의 글을 번역한 〈胡適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혁명〉을 게재했다. 이어서 1927년 8월에는 유기석이 청원이라는 필명으로 《동광》에 魯迅의 〈狂人日記〉를 번역 연재했고, 1929년 1월에는 양백화가 개벽사에서 《중국단편소설집》을 번역 출판했다.²⁾ 이렇게 본다면 중국현대문학 작품 및 이론서 번역은 그 동안 장기간에 걸친 침체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특히 근래에 와서는 대단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조사한 각종 목록을 참고하여 중국현대문학과 관련된 이론서 및 작품의 번역 출판 상황을 알아보고³⁾ 일부 번역문을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실제 번역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 다음 중국현대문학의 번역과 관련한 필자 나름대로의 몇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한다

2. 한글 번역 중국현대문학 관련 서적 상황

초창기에 양백화, 정래동 등에 의해 진행되던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관심과 소개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계기로 점차 위축되기 시작해서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완전히 봉쇄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 김광주·이용규 공역의 《魯迅소설선집》이 출판되기도 했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1950년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양국 간의 국교 단절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은 이후 수십 년간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⁴⁾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1972년 2월

2) 이상 김시준, 〈한국에서의 중국현대문학연구 개황과 전망〉, 《중국어문학지》 제4집, 서울 : 중국어문학회, 1997.12, PP.1-8. 참고.

3) 필자가 조사한 각종 목록은 조사 기간과 조사 방법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로 1980년대 이후의 출판물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문에서 필자가 이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 중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지적해주기를 희망한다.

4) 이상 김시준, 〈한국에서의 중국현대문학연구 개황과 전망〉, 《중국어문학지》 제4집, 서울 : 중국어문학회, 1997.12, PP.1-8. 참고.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이른바 '죽의 장막' 속에 있던 중국에 관한 관심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고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8년 鄧小平 체재의 성립에 이은 개방과 개혁 정책에 따라 우리와의 접촉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분야도 차츰 활성화되었다. 특히 이런 사회적 변화의 하나로써 1972년을 기점으로 중문과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일제시대부터 서울대학교에 중문과가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광복 전까지 한국인 졸업생은 겨우 9명에 불과했으며, 해방 후에도 한 해 겨우 1-3명의 졸업생 밖에 되지 않았다. 그 후 1954년 외국어대학교에, 1955년 성균관대학교에 각각 중국어과와 중문과가 설치되기는 했지만 역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는 많지 않았다.5) 그런데 1972년에 이르자 그 해에만 고려대, 단국대, 숙명대의 세 학교에 중문과가 생기더니, 해마다 여러 개씩 증가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110여 개의 중문과가 있다.

이처럼 중문과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우선 중국현대문학을 연구하는 전공자를 비롯하여 번역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대거 육성하는 역할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중문과 졸업생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일반 독자들과 더불어 그 자체로도 기본적인 독자층을 형성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현대문학 관련 학위의 배출 추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온 중국현대문학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10편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처럼 1972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석사 학위를 받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6)

최근 20년 간 중국현대문학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수

5) 이장우, 〈중국문학연구사 장편(15) 한국 중국문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중국어문학》 제15집, 경산 : 영남중국어문학회, 1988.12, PP.503-515.

6)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1989년 이후 매년 수 편씩 나오고 있으며, 특히 1993년과 1996년에는 각각 그해에만 무려 12편이 나왔다.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석사	2	2	6	3	5	8	6	11	18	17
박사	0	0	0	0	1	0	0	0	0	2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석사	18	14	9	28	18	13	12	17	23	18
박사	2	1	7	12	3	5	12	6	6	5

이상의 상황은 중국현대문학 관련 서적의 번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저 이론서(평론 포함)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980년 이전까지 10권이 채 안되던 것이 1980년 이후가 되면 매년 수 권씩의 이론서가 번역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중국 현대작가론》(黃南翔 외, 1985), 《현대 중국작가 평전》(彦火 외, 1986) 등 비교적 작가 소개와 관련된 서적이 많았으나 1990년을 전후하여 《중국현대문학운동사》(朱德發 외, 1989), 《중국현대문학발전사》(黃修己, 1991)를 비롯하여 문학사류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오면서 《중국 현대시의 이해》(錢光培 向遠, 1998), 《중국 현대산문론 1949-1996》(李曉虹, 2000) 등 개별 장르의 좀더 전문적인 연구서들이 번역되고 있다.

이론서의 번역 중에서도 비교적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현대문학발전사》(黃修己, 1991)의 번역이다. 중국현대문학사는 아마도 중문과 학생에게나 일반인에게 중국현대문학의 진전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적일 것이다. 일찍이 《중국현대문학사》(윤영춘, 1949)가 출판되어 이 방면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고판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후 수 십 년이 지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현대문학론》(김시준 이충양, 1987)과 같은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체제나 내용면에서 아직 본격적인 문학사로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때를 전후하여 연변의 중국동포들이 쓴 문학사류가 영인되어 나오으로써 비교적 체계 있는 문학사가 보급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유의 서적들은 중국의

7) 김혜준, 〈국내 중국 현대 문학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2000.10.22.), http://users.sinology.org/dodami/KHJ_Catalogues.htm 참고.

교과서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가 아직 기존의 정치적 관념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어서 관점 등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된 《중국현대문학발전사》(黃修己, 1991)는 방대한 내용, 체계적 서술, 문학현상 우선의 관점 등으로 학술 서적으로 비교적 보기 드물게 이미4쇄까지 나올 만큼 우리나라 중문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연구자에 의해 일본어 또는 영어로 된 이론서의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노신평전》(丸山勝, 1982), 《중국현대문학사》(菊地三郎, 1986), 《100년 간의 중국문학》(藤井省三, 1995), 《자오수리평전》(釜屋修, 1999)이라든가 《중국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Paul G. Pickowicz, 1991)과 같은 책들이 그러한데, 이런 서적들의 번역은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관점과 정보면에서 중국학자들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아 아직은 그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품 번역면에서는 무엇보다도 확연하게 눈에 띄이는 것은 소설 번역의 절대 우세이다. 필자의 조사로는 소설은 무협소설류를 제외하고도 같은 작품이 중복 출판된 것을 포함하여 약 400권 이상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약 150권 가량의 산문, 25권 가량의 시, 겨우 대여섯 권에 불과한 극본에 비교한다면 압도적인 양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소설이 수적 우위에 있다는 점 번역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시보다는 소설이 독자에게 어필하기 쉽다는 점 중국인과 중국사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가 쉽다는 점 등 아무래도 다른 장르보다는 소설이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자나 독자는 물론 출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설의 연도별 번역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 이전까지와 1970년대에는 각각 10권 남짓에 불과했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 점차 그 숫자가 늘기 시작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년 10수 권이 번역되었고, 특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부터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수 년 간 해마다 30권 이상 번역되었는데, 이른바 IMF사태를 전후하여 잠시 주춤하더니 올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다. 이러한 양적인 면에서의 소설 번역 추세는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호전이 문학 방면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준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는 1989년 중앙일보사에서 우리나라의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들과 협력하여 중국현대문학전집을 출판했던 것이다. 이 전집은 소설 16권, 산문 1권, 시 1권, 극본 1권, 평론 1권 등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번역자 대부분이 중국현대문학에 전문적 소양을 갖춘 분들이고 중국현대문학 전 시기를 관통하여 각 장르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소홀하기 쉬운 臺灣의 작품에도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작업이었다. 즉 그 동안 중국현대문학 작품에 대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소개가 이 전집의 출간을 계기로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신뢰할 수 있는 번역자와 공신력 있는 출판사라는 조건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일반 독자들에게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瓊瑤 소설의 대량 출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瓊瑤(1938-)는 臺灣의 여성 대중소설 작가로, 16세에 〈雲影〉으로 등단한 이후 한동안 3,4개월에 장편소설 한 편씩을 써서 지금까지 4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할 정도로 다작하는 작가이다. 출세작 〈窗外〉가 수록된 단편소설집 《窗外》(1963)는 40여 차례나 재판을 거듭했으며 그 외 다른 작품들 역시 대개 10 차례 이상 재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도 40여 편이 넘을 만큼 그녀의 소설은 커다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은 대개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분방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성들로 신비롭고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인데 이런 점들이 젊은이들에게 사랑 받는 이유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소간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여주인공들의 사랑 놀음이 비슷비슷한 스토리와 구성으로 펼쳐진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한다. 이런 瓊瑤의 소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2,3권씩 번역되었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그다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92년 SBS에서 그녀의 소설 〈금잔화〉를 각색하여 드라마로 방영했고, 이것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그때부터 1992년 한 해에만 무려 24권의 번역본이 나오는 등 해마다 수 권씩 끊임없이 번역되어 지금까지 약 75권 이상이 출판되었다. 필자의 짐작으로는 아마도 그녀의 소설은 전편이 모두 번역이 된 듯한데, 나중 이의 영향으로 비슷한 유형의 대중작가인 朱秀娟·李碧華 등의 소설도 상당수 번역되었다.⁸⁾

또 한 가지는 중국 현대소설 번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한결같은 이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魯迅 소설이 계속해서 되풀이 출판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魯迅의 소설 작품은 《吶喊》, 《彷徨》, 《故事新編》에 실린 것을 다 합쳐서 모두 33편으로, 이를 모두 묶어서 한 권으로 출판해도 될 분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이 지금까지 60권 이상 출판된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 우선은 그의 작품이 중국현대문학에서도 대표적인 지위를 차지할 만큼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명도도 높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현대문학의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싶어 하는 독자나 그러한 수요를 고려한 출판사는 물론이고 역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번역에 대한 충동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현대문학사상 훌륭한 작품이 대단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특정 작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魯迅과 瓊瑤의 소설 번역을 합친다면 135권 가량으로 전체 소설 번역 수 약 400권의 1/3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장르보다도 소설 장르가 월등히 많이 번역된다든가, 소설 내에서도 魯迅과 瓊瑤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번역된다든가 하는 것

8) 대중소설의 대량 번역과 관련하여 〈영웅문〉(金庸)을 비롯한 무협소설의 대량 출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지만 조사가 미흡한 관계로 이 발표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1990년대 이전의 중국 무협소설의 번역에 관해서는 이치수 〈중국 무협소설의 번역 소개와 영향〉, 《중국소설연구회보》 제12호, 서울 : 중국소설연구회, 1992, PP.1-19.를 참고하기 바란다.

은 일종의 편중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편중 현상은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엄숙문학 작품은 거의 중국 대륙의 것에 국한되고 대중문학 작품은 주로 臺灣·香港 것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대중문학을 제외하면 臺灣·香港의 엄숙문학 작품은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香港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1949년 이전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1976년 이후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고 있는 한편으로 1949년-1976년 사이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보아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소설 분야에서 보인 특정 작가 편중은 산문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그 작가가 林語堂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필자의 조사로는 산문 전체의 번역출판의 수가 약 150권쯤 되는데, 그 절반이 林語堂의 것이며, 그 중에서도 단순히 《생활의 발견》이라고 이름 붙은 책만 해도 20권이 넘는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林語堂의 작품 일색이었고, 비록 새로운 작품이 번역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십 년에 걸쳐 거의 매년 몇 권씩 그의 산문집이 출판되었다. 아마도 林語堂의 수필이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게 된 것은 그의 작품이 이룬 성취 외에도 그가 한때 노벨상 후보로 올랐던 점, 생애 후반에는 주로 영어권에서 활동했으며 또 영어로 출판된 작품이 많았다는 점, 비공산당적 성향을 가진 작가였다는 점 등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그의 산문집 번역 대부분이 영어를 저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현대문학 작품의 번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독자에게는 그가 중국문학가로 각인되어 있고 그의 작품은 중국현대 산문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본은 대부분 林語堂이 중국어로 쓴 것을 영역한 것이므로,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며 어쨌든 林語堂의 작품이 우리나라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대단히 컸다는 점에서는 魯迅이나 최근의 瓊瑤와 더불어 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魯迅의 산문 번역은 林語堂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아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9) 예를 들면 《生活的藝術》, 《吾國與吾民》, 《京華雲烟》과 같은 산문집이 그러하다.

역시 10권이 넘으며, 특히 이옥연이 편역한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魯迅, 1991)는 이 분야에서는 일종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큼 많은 부수가 팔렸다고 한다.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背影〉의 작가 朱自淸의 산문집도 여러 권 눈에 띄이며, 郭沫若의 자서전 4권이 모두 번역된 것도 비교적 특이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魯迅·朱自淸·郁達夫와 같이 20세기 전반의 훌륭한 산문가의 작품은 미미하나마 그런대로 번역이 되었지만 楊朔·秦牧·劉白羽와 같은 20세기 중반의 대표적 산문가들이나 余秋雨·賈平凹·王英琦와 같은 20세기 후반의 산문가들의 작품은 거의 번역되지 않은 점이다. 그런 가운데도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산문집 번역의 숫자가 비교적 늘어나고 또 여러 작가의 작품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臺灣을 비롯해서 대륙에서까지 크게 유행했던 三毛·席慕蓉의 작품이 여러 권 번역된 것은 출판에서의 상업성이 고려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역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작품들이 우리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¹⁰⁾ 또 이런 작품들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간 중국현대문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이미지(毛澤東, 공산당, 사회주의 문화대혁명, ……)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문학과 다름없이 인간 삶의 총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다.

소설과 산문에 비하자면 중국 현대시와 현대극의 번역은 대단히 부진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시의 경우 겨우 25권 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도종환·이해인 등 일부 시인들의 시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나 창비시선이 200권을 돌파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아무래도 중국현대문학계가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시에 대한 우리나라 독자들의 선호를 감안한다면 중국현대시의 번역은 지나치게 빈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온 영시나 불시의 번역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10) 필자 자신도 홈페이지 <http://users.sinology.org/dodami>에서 매주 한 편씩 1990년대 중국 산문 작품을 번역 연재하고 있는데 방문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중국현대시 번역에서 비교적 눈에 띄는 것은 우선《중국 현대시선》(1976)을 비롯하여 허세욱 교수가 옮긴 여러 권의 시선집들이다 그는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를 고르거나 우리 말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艾靑과 北島의 시가 여러 권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는 그들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과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들어와서 顧城·傅天琳·舒婷 등 최근 시인들의 작품이 여럿 번역되었다는 점인데, 이로 볼 때 앞으로 중국 현대시의 번역이 좀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극본의 번역은 시에 비해서도 훨씬 사정이 나빠 거의 참담한 수준이다 《뇌우/찾집》(曹禺/老舍, 1989)을 비롯하여 10권이 채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曹禺의 《雷雨》, 《原野》, 《日出》가 모두 번역되었다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될 정도이다. 극본은 원래 읽기의 대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장르에 비해 불리한 점이 없지 않다. 또 그 동안 우리나라의 중국현대문학 연구자 중에서도 극문학 전공자가 적었던 것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曹禺의 〈雷雨〉가 해방 직후 및 수 년 전에 되풀이 공연되어 상당히 호응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는 출판사의 입장이 게재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우리 학계 내지는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현대문학과 관련한 우리 말 번역서는 대체로 이론서가 60권, 소설이 400권, 산문이 150권, 시가 25권, 극본이 10권 가량으로 모두 합쳐서 650권이 조금 못미치는 숫자다. 언뜻 이 숫자만 보면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인 즉 중국현대문학사의 역사나 중국현대문학 번역의 역사로 볼 때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닐 뿐더러, 그 중에서도 魯迅·瓊瑤·林語堂 등처럼 중복되거나

또는 일부 완전히 대중의 기호에만 맞춘 저급의 대중소설 등 상대적으로 번역의 필요성이 낮은 것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부진한 숫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이런 중국현대문학 관련 번역은 중앙일보사의 전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출판사나 또는 중국현대문학 관계자에 의한 기획번역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즉 중국현대문학 관련 서적을 비교적 많이 출판한 곳이라고 해도 각각 홍익출판사 15권, 범우사 8권, 청년사 8권, 일월서각 8권, 다섯수레 6권, 고려원 6권, 명문당 6권, 해원출판사 5권, 백산서당 5권 가량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홍익출판사에서 瓊瑤의 소설을 위주로 대중소설을 집중적으로 출판한 것을 제외하면 그 몇 권들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간 중국현대문학 번역에 힘써온 몇몇 열성적인 번역자들의 노력은 마땅히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초창기의 양백화나 정래동, 해방 직후의 김광주와 같은 분이 그럴 것이다. 또 일찍이 1970년대부터 魯迅·老舍·白先勇 등의 소설, 朱自淸·郁達夫 등의 산문, 중국현대문학 각 시기별 대표 시인들의 시를 번역한 허세욱이라든가 중국현대문학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1985년부터 약 10년 간 작가 소개서 3권, 산문집 1권, 시집 1권 및 소설 15권 등 모두 20권을 번역한 박재연, 그리고 1990년대 들어 魯迅과 관련된 서적을 꾸준히 번역하고 있는 유세종과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럴 것이다.

3. 번역의 문제점

문학 작품의 번역은 과학언어나 일상언어로 쓰여진 학술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의 번역보다 더욱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문학 작품이 이상적으로는 단어 하나 부호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치밀하게 상호 결합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완결된 통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편의 문학 작품을 완결

된 통체로서 전혀 손상없이 문화적·역사적 전통 등이 상이한 다른 언어 체계를 사용하여 옮겨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문학 작품의 번역은 단순히 어떻게 해당 언어를 정확하게 옮겨놓는가 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작품의 의미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김하림은 魯迅의 〈狂人日記〉에 나오는 한 구절 “有了四千年吃人履歷的我，當初雖然不知道，現在明白，難見眞的人!”의 ‘難見眞的人’을 예로 들면서,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참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참된 사람을 볼 면목이 없다’는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丸尾常喜가 일본어 번역을 예로 들어 밝힌 대로 주인공인 광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자아수치감으로 인해 내뱉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학 작품의 번역은 결국 그저 어휘나 문장의 정확한 번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의 창작관 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까지도 연결되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 상호 간의 접촉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번역이라는 작업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면서 실제 번역을 예로 들어 중국현대문학의 번역에 있어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 그 대상으로는 魯迅의 작품 중에서 〈野草·狗的駁詰〉과 〈阿Q正傳·優勝紀略〉을 택했다.¹²⁾ 그것은 魯迅이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점하고 있는 지위가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나와있는 데다가 번역자들 역시

-
- 11) 김하림, 〈魯迅 『광인일기』의 해석과 수용에 관한 연구〉, 《중국현대문학》 제16호, 서울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1999.6, PP.259-278. 김하림이 인용한 丸尾常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참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식으로 번역해오다가 그 후 ‘참된 사람을 볼 면목이 없다’는 식으로 바뀐 것은 작품 해석상의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김하림은 중국에서 나온 영역본에서도 후자 식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12) 필자는 15년 전인 1985년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유사한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 필자가 맡은 부분은 〈阿Q正傳·戀愛的悲劇〉이었다. 이번 발표에서 〈阿Q正傳·優勝紀略〉을 선택한 것은 이 부분에 그 유명한 ‘정신승리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 원문 파악 부정확에 따른 오역

먼저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원문 파악의 부정확에 따른 오역의 문제일 것이다. 단어의 오역, 어법상의 오역, 내용상의 오역 등이 그러한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종류의 오역은 어쩌면 번역 작업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즉 그것은 역자의 역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오역이 다음과 같이 자칫 작품 이해를 방해할 정도라면 곤란할 것이다.

(魯) 狗的駁詰 [...] “不敢, 愧不如人呢。”

(a) 개의 반박 [...] 『흥! 설마하니 내가 사람만 못할라구』

(b) 개의 지껄임 [...] “설마하니 내가 사람만 못하겠네”

(c) 개의 반박 [...] “어디 감히, 부끄럽지만 사람만은 못하지.”

〈野草·狗的駁詰〉의 제목에 사용된 ‘駁詰’란 단어는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三聯書店)에도 안나올 정도로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닌데, 《중한사전》(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9)에서는 ‘책망하다. 질책하다. 힐난하다. 논박하다. 힐문하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狗的駁詰〉에서 보면, 꿈속에서 작중 화자가 개를 보고 권세나 재산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을 나무라자, 이런 저런 예를 들어가며 개는 그래도 자기가 사람이 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사람을 비꼬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는 ‘힐난하다, 힐문하다, 반박하다’ 정도의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개의 지껄임’이라고 번역한 것은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개가 풍자적으로 ‘不敢, 愧不如人呢’라고 한 말을 (a)(b)처럼 ‘사람보다 낫다’는 식으로 잘못 번역하면 일견 원래 魯迅의 의도에 부합하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魯迅이 꿈이라는 간접적인 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개보다 못한 형편이라는 점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이와 같은 오역이 혹시 단순히 역자의 소홀 내지는 선행작업의 단순 참고의 결과라고 한다면 더욱 생각해 볼 문제다. 예컨대 〈阿Q正傳·優勝紀略〉에 나오는 ‘油煎大頭魚’를 조사 대상 중 네 개의 번역이 ‘도미 튀김’, ‘기름에 튀긴 도미’, ‘기름에 지진 도미’, ‘도미를 튀길 때’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단 하나 만이 ‘대구를 지질 때’ 라고 번역하고 있다.¹³⁾ 이런 현상은 다른 데서도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역시 그렇다.

(魯) 估量了對手, 口訥的他便罵, 氣力小的他便打,

(A) 상대를 어렵쳐 봐 말을 더듬는 놈이면 매도(罵倒)하고, 기운이 약한 놈이면 때렸다.

(B) 상대를 어렵쳐 보고 상대가 말을 더듬거리면 욕지거리를 해대고 힘을 못쓰는 것 같으면 때리려고 덤벼들었다.

(C) 상대방을 어렵쳐 본다. 상대가 말을 더듬으면 욕을 해대고 힘이 약하면 때리려고 덤벼들었다.

(D) 상대를 어렵쳐 봐서 말솜씨가 좋지 않은 놈이면 매도(罵倒)하고, 기운이 약한 놈이면 두들겨주는 것이었다.

(E) 상대를 평가해보고서 어눌한 자 같으면 욕을 했고 힘이 약한 자 같으면 때렸다.

원래 ‘訥’는 ‘말을 더듬다’는 뜻도 있고 ‘말이 서투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앞뒤 관계로 보아 당연히 후자의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口訥的’는 ‘어눌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A)(B)(C)는 한결 같이 ‘말을 더듬거리는 자’ 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게다가 (A)(B)(C)는 물론 (D)까지도 ‘估量了’를 우리 말 사전에도 안나오는 ‘어렵쳐 보다’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볼 때,¹⁴⁾ 혹시 ‘口訥的’의 오역도 선행작업을 단순 참고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13) ‘大頭魚’를 ‘도미’로 올바르게 번역하게 된 것은, 위 번역본의 출간 시점을 볼 때 1989년 10월 《중한사전》(고대민족문화연구소)이 발간된 것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14) 우리 말 사전에 없는 말이기 는 하지만 ‘어렵쳐 보다’라는 식의 표현 그 자체는 상당히 신선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원문 파악의 부정확에 따른 오역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번역자 개인의 역량 제고와 책임감 강화에 따라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누락과 부연

위에서 번역자의 소홀을 거론했는데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마도 원문을 번역하지 않고 누락하는 현상일 것이다 물론 번역자가 원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 가끔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번역이 누락된 경우의 대부분은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거나 미묘한 어감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다음 예를 보자.

(魯) 閑人還不完, 只撩他, 於是終而至於打。阿Q在形式上打敗了, 被人揪住黃辮子, 在壁上碰了四五個響頭, 閑人這才心滿意足的得勝的走了, 阿Q站了一刻, 心裡想, “我從算被兒子打了, 現在的世界真不像樣……” 於是也心滿意足的得勝的走了。

(B) 건달패들은 그래도 아직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듯이 그를 툼러 주려했다. 마침내는 때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아큐는 한참 동안 서서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들놈에게 맞은 거나 다름없어, 이놈의 세상은 정말이지 돼먹지 않았거든…….’ 그리고는 아큐는 승리를 얻은 양 득의만면해서 가 버렸다.

주지하다시피 魯迅이 말한 阿Q의 ‘정신승리법’은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그런데 위 번역의 경우 우선 ‘정신승리법’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阿Q在形式上打敗了’ 이하 한 부분을 누락시켜 버림으로써 ‘정신승리법’에 대한 독자의 순조로운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閑人這才心滿意足的得勝的走了’와 ‘阿Q[……]也心滿意足的得勝的走了’라는 대조적인 두 구절은, 閑人和 阿Q가 각자 모두 만족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단 ‘정신승리법’의 소유자 阿Q에 대한 풍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등장 인물 전체 또는 중국인 전체에 대한 풍자의 역할

까지 하는 듯한 그런 미묘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번역자의 소홀 탓에 일어나는 누락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누락 문제와는 반대로 번역자가 원문이 의도하는 바를 살리기 위해 원문에는 없는 단어나 문구를 첨가하거나 부연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는데 필자는 이 역시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魯迅과 같이 생동적인 짧은 글귀로 마치 비수나 투창처럼 핵심을 찌르는 스타일의 글을 쓰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인용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다음 예를 보자

(魯) 他不知道誰和誰爲什麼打起架來了。罵聲打聲腳步聲，昏頭昏腦的一大陣，他才爬起來，

(A) 누구와 누구가 무엇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욱하는 소리, 치는 소리, 어지러운 걸음 소리 무엇이 무언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이 한참 계속됐다. 그가 간신히 기어 일어났을 때엔

(B) 이때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다. 아큐는 누가 누구와 왜 싸움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다. 욱하는 소리, 치고받는 소리, 발소리,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을 한바탕 치르고 났다 겨우 일어나 보니

(C) 아큐는 누가 누구와 왜 싸움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욱하는 소리, 치고받는 소리, 발자국소리, 뭐가 뭔지 모르겠는 혼미함을 한바탕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보니,

(D) 누가 누구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욱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이 한바탕 벌어졌다. 그가 간신히 기어나왔을 땐

(E) 누가 누구와 무엇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는 몰랐다 욱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그가 간신히 일어나보니

위 예문은 阿Q가 노름판에서 한창 돈을 따고 있을 때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이다. 여기서 보듯이, 魯迅은 짧은 말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긴박한 순간을 효과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말 번역에서는 대체로 ‘昏頭昏腦的一大陣’을 길게 번역함으로써 그런 긴박

감이 훨씬 떨어진다. 더군다나 (B)의 경우에는,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때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다’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단순히 불필요한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魯迅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가지는 미묘한 효과를 방해하고 있다

(3) 우리말의 부자연

번역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우리말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대체로 봐서 부적절한 어휘, 문법상의 오류, 표현력의 부족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 중 하나로 중국식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다.¹⁵⁾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한자와 한자식 어휘를 사용해 온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즉,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중국어 어휘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한자식 어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우리의 어휘가 뜻이 다르거나 어감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어휘와 같이 취급해 버림으로써 빚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만일 중국어의 ‘高等學校’ 를 ‘고등교육학교’ 또는 ‘대학교’ 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라고 한다면, ‘思想深刻’ 를 ‘사상(생각)이 깊이가 있다’ 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상이 심각하다’ 식으로 번역한다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번 작업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었는데 다음의 예가 그렇다.

- (魯) 優勝紀略
- (A) 優勝의 記錄
- (B) 승리의 기록
- (C) 우승의 기록
- (D) 우승(優勝)의 기록(記錄)
- (E) 승리의 기록

15)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말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원문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오역에 기인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우리말에서 ‘우승’ 과 ‘승리’ 는 각각 ‘1등으로 이김’ 과 그냥 ‘싸움에서 이김’ 이라는 미묘하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어의 ‘優勝’ 은 ‘성적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이김’ 이란 뜻이기는 하지만〈阿Q正傳·優勝紀略〉에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승리’ 라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優勝’ 은 그 뜻에 좇아서 ‘승리’ 라고 해야지 단순히 우리 말 어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한자음 그대로 옮기면 곤란한 것이다

(4) 원문의 특수성

이처럼 중국어 어휘와 우리말 어휘의 차이를 구분 짓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오류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는 중국어와 우리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예문을 보도록 하자.

(魯) “你還不配……” 〔…〕 他立刻知道和“犯忌”有點抵觸，便不再往底下說。

- (A) 「넌까짓놈에게는……」 […] 금기(禁忌)에 좀 저촉된다는 것을 곧 알고는 더 말하지 않는 것이다
- (B) “너희 같은 놈들은……” 〔…〕 그는 대번에 ‘금기’ 에 저촉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 (C) “네놈들은 상대도 안 돼……” 〔…〕 그는 곧 금기(禁忌)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 (D) “넌같은 놈들과는 상대도 안돼……” 〔…〕 ‘금기(禁忌)’ 에 조금 저촉된다는 걸 알고서 그만 말을 잊지 않는 것이었다
- (E) “너 같은 놈한테는……” 〔…〕 자기가 ‘금기’ 에 저촉될 뻔했다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서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위 예문의 앞 장면에 阿Q는 자신의 머리에 있는 ‘癩瘡疤’ 와 관련있는 말을 싫어하는 기휘의 습관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你還不配……” 의 말줄임표에 들어가야 할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和“犯忌”有點抵觸’ 라는 말과 연결해 볼 때, 아마도 阿Q의 癩瘡疤와 관계 있는 말일 것이다. 그러

나 위의 번역문에서 보듯이 우리말에서는 이런 것을 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워서 말줄임표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만일 원문의 역할을 꼭 살리
려고 한다면 “네까짓놈에게는 내 이 ……” 정도가 최선일 듯 싶다. 바로 이
처럼 중국어와 우리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곳곳에서 만나게 되
는데, 이 외에도 성어 사용, 고문 사용, 경어 사용, 시제 사용, 조사의 사용
……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또 작가의 특별한 표현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魯) 不久也就彷彿是自己打了別個一般, -- 雖然還有些熱刺刺 -- 心滿意足
的得勝的躺下了。

(A) 이윽고 자기가 남을 때린 것 같아 -- 아직도 얼얼하기는 했으나 --
만족해서 의기양양하게 누워 버렸다.

(B) 얼마 되지 않아 마치 다른 사람을 때린 것같이 느껴졌다. 아직도 좀
얼얼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흡족해져서 드러누웠다.

(C) 오래지 않아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을 친 것같이 느껴졌다 비록 조
금 후끈거리긴 했어도 -- 마음이 흡족해서 의기 양양하게 누워 버렸
다.

(D) 잠시 후 그는 자기가 남을 때린 것같이 -- 비록 아직도 얼얼하지만
-- 몹시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드러누웠다.

(E) 잠시 후에는 자기가 남을 때린 것 같았으므로 -- 비록 아직도 얼얼하
기는 했지만 --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드러누웠다.

이 장면은 阿Q가 노름판에서 딴 돈을 아마도 누군가가 고의로 시작했을
싸움판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몽땅 잃어버린 후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방식
의 ‘정신승리법’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장면인데, 번역본에서는 魯迅이 쓴
‘心滿意足的得勝的’를 대체로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라는 식으로 번
역하고 있다. 그러나 실인즉 이 장의 제목이 ‘優勝紀略’이고 또 그 앞에서
魯迅이 동일한 표현을 이미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
면 아무래도 이 말을 단순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즉 魯迅은 같은 구절을 되풀이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상승 효과를 자아내는

한편¹⁶⁾ 앞서 ‘누락’의 문제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종의 중층적인 풍자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阿Q가 ‘이번에도 결국은 승리를 거두어 만족스러워하며’라는 뜻을 살리는 쪽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¹⁷⁾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 위에서 말한 중국어의 고유 표현법에 따른 것이라든가 작가의 특별한 표현에 의한 것 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 의한 것 역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예를 들어 보자. 〈阿Q正傳·優勝紀略〉에는 다음과 같이 ‘押牌寶’라고 하는 노름판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押牌寶’를 각기 도박/투전판/야바위 노름으로 번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름의 방법과 관련한 번역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魯) 他便去押牌寶, [...] “天門啦~~角回啦~~! 人和穿堂空在那裡啦~~! 阿Q的銅錢拿過來~~!”

(A) 그는 도박을 하러 간다. [...] “천문(天文)이다…… 각(角)은 트고 인(人)과 천당(穿堂)은 죽었어! 阿Q의 돈은 내가 먹었어……”

(B) 투전판으로 갔다. [...] “천문(天文)이다. 각(角)이 돌아섰다. 인(人)과

16) 魯迅은 노름판 장면에서 ‘汗流滿面的’라는 말을 되풀이 사용함으로써 각 인물들의 모습을 핏진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름판이 점점 더 열기를 띠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阿Q“先前闊”, 見識高, 而且“真能做”, 本來幾乎是一個“完人”了,’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자신이 앞에서 이미 묘사한 구절을 되풀이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阿Q의 이미지를 뚜렷이 각인시키는 한편 그런 묘사가 가진 풍자성을 상승시켜 나가고 있다.

17) ‘心滿意足的得勝的’라는 모두 5번 반복되는 구절에 대하여 번역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1	2	3	4	5
(A)	만족해하고 승리를 자랑하며	만족해서 의기양양하게	만족해서 의기양양하게	만족해서 의기양양하게	만족해서 의기양양하게
(B)	(누락)	승리를 얻은 양득의만면해서	신이 나서	승리감으로 의기양양하게	마음이 흡족해져서
(C)	만족해서 승리를 자랑하며	만족하게 승리를 얻은 양	득의 양양해서	득의 만면해서	마음이 흡족해서 의기양양하게
(D)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만족해서 의기양양해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몹시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E)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해	만족하여 의기양양하게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천당(穿堂)은 비었다! …… 아큐는 동전을 이리 가져와!”

- (C) 그는 투전판에 갔다. […] “천문(天文)이다. 각(角)이 돌아섰다. 인(人)과 천당(穿堂)은 비었다……! 아큐의 동전은 이리 가져 와!”
- (D) 그는 도박을 하러 간다. […] “천문(天文)이로다 --. 각(角)은 비기고, 인(人)과 천당(穿堂)은 졌다. -- 아큐의 돈은 내가 먹었어……”
- (E) 그는 야바위 노름을 하러 갔다. […] “천문(天文)이군요 -- 각(角)은 텃고요 -- ! 인(人)이랑 천당(穿堂)은 아무도 안 걸었고요 -- ! 아Q 돈은 가져오고요 -- !”

(5) 명사의 음역과 의역

앞서 말한 것들, 즉 원문 파악 부정확에 따른 오역, 누락과 부연, 우리말의 부자연 등이 주로 번역자 개인의 역량이나 성실성과 관계되는 문제였다면 필자가 ‘원문의 특수성’ 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번역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문제로서 번역의 어려움을 자아내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연장선 상에 있는 중국어의 음역/의역/음의역 문제라든가 중국음의 표기 방식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魯) 譬如用三尺長三寸寬的木版做成的凳子， 未莊叫“長凳”， 他也叫“長凳”， 成裡人却叫“條凳”，
- (A) 가령 길이 석 자, 폭 세 치의 널판으로 만든 걸상을 미장에서는 <장등(長凳)>이라고 부르며, 그도 <장등>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성내 사람들은 <조등(條凳)>이라고 부르고 있다.
 - (B) 가령 길이가 석 자, 폭이 세 치 되는 나무판자로 만든 걸상을 웨이쥡에서는 ‘창평(長凳)’ 이라고 부르고 그 자신도 ‘창평’ 이라고 하는데, 문안 사람들은 ‘타오평(條凳)’ 이라고 불렀다.
 - (C) 예를 들어, 길이가 석 자에 넓이가 세 치 되는 나무 판자로 만든 걸상을 웨이쥡에서는 ‘장등(長凳)’ 이라고 부르며 그도 또한 그렇게 부르는데, 성안 사람들은 ‘조등(條凳)’ 이라고 불렀다.
 - (D) 예컨대, 길이 석 자, 폭 세 치의 널판자로 만든 걸상을 미장에서는 ‘장등(長凳)’ 이라고 부르며, 그도 ‘장등’ 이라고 불렀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조등(條凳)’ 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 (E) 예를 들면, 길이 석 자 너비 세 치의 널빤지로 만든 의자를 웨이주앙에서는 ‘긴 결상(長凳)’ 이라고 불렀고 자기도 ‘긴 결상’ 이라고 부르는데 성내 사람들은 ‘쪽결상(條凳)’ 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보면, 未莊을 각각 미장/웨이쥡/웨이쥡/미장/웨이주앙으로 옮겨 놓고 있으며, 長凳은 장등/창명/장등/장등/긴 결상으로, 條凳은 조등/타오명/조등/조등/쪽결상으로 옮겨 놓고 있는데, 음역과 의역이 뒤섞여 있는 데다가 음역도 한자음과 중국음이 다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 (魯) 趙太爺錢太爺
- (A) 조 나으리와 전 나으리
- (B) 자오 영감과 첸 영감
- (C) 자오 나리와 첸 나리
- (D) 조 나으리와 전 나으리
- (E) 짜오 노어른과 치엔 노어른

이는 음역과 의역이 결합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西湖’ 를 각각 ‘서호/시호/시후’ 라고 할 수도 있고, ‘長江’ 을 ‘장강/츠양강/츠양지양’ ㄴ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1) 고유명사 : ‘魯迅, 未莊’ 과 같은 인명, 지명 등은 ‘루쑤/웨이주앙’ ㄴ식으로 중국음대로 표기한다. 그러나 앞서 예를 든 ‘西湖/長江’ 은 각각 ‘시호/츠양강’ ㄴ식으로 번역한다. 또 ‘人民日報/新華社’ 와 같은 것은 ‘인민일보/신화사’ ㄴ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이 경우 필자는 이를 의역으로 간주한다 (2) 일반명사 : 필자는 ‘知縣/行狀/文童/秀才’ 와 같은 말들은 각각 ‘지현/행장/문동/수재’ 로, ‘長凳/條凳/癩瘡疤’ 는 ‘긴 결상/쪽결상/부스럼흔적’ ㄴ식으로, ‘趙太爺/錢太爺’ 는 ‘자오나리/치엔나리’ ㄴ식으로 하는 데 찬성한다. 다만 앞의 지현 등의 말들은 음역이라고 보지 않고 의역이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본다면 필자 역시 엄밀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상황별로 음역

의역, 음의역을 혼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혀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고, 크게 보아 인명은 모두 중국음으로 표기하고 지명은 산·강·호수와 같이 일반명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역시 중국음으로 표기하며 그 외의 명사들은 비록 한자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의역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중국음의 표기법은 실제음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또 단음절이 다음절로 표기되는 등 불만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체계적이라는 면에서〈최영애·김용옥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단 번역자 나름의 일관된 번역 방식을 사용하되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모범적인 번역 방식이 연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특히 음역의 경우에는 중국음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중국음 표기 방법과 관련해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교육부안이라든가 〈최영애·김용옥 표기법〉 또는 개별적인 표기 방식이 가진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계 차원에서 통일된 표기 방법이 나오기를 고대해마지 않는다.

(6) 설명의 활용

지금까지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 번역에서 때때로 번역자의 설명이 부득이한 경우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魯) 阿Q沒有家, 住在未莊的土穀祠裡

(A) 阿Q는 집도 없이 미장의 사당(祠堂)안에 살고 있었으며

(B) 아큐는 집도 없이 웨이장에 있는 투꾸츠(土穀祠)(지신과 곡신에게 제사 지내는 시골의 사당)안에서 살았다.

(C) 아큐는 집도 없이, 웨이쥬에 있는 토곡사(土穀祠, 지신[地神]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주)에서 살았다.

(D) 아큐는 집도 없이 미장의 사당(祠堂)안에 살고 있었으며

(E) 아Q는 집이 없어서 웨이주앙의 사당에서 살았다

여기서 ‘土穀祠’에 대해 (A)(D)(E)는 아예 별다른 설명 없이 ‘사당’이라고 번역했고, (B)(C)는 각각 ‘투꾸츠’·‘토곡사’라고 번역하면서 본문에 괄호를 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일단 ‘土穀祠’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냥 ‘사당’이라고 한다면 한 가문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므로 ‘土穀祠’는 전혀 다른 곳일 뿐만 아니라, 집도 절도 없는 없이 고용농으로 떠도는 阿Q 같은 인물이 기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신 사당’ ~쯤으로 번역해 주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이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덧붙일 것인가 하는 것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번역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의 예에서 보듯이 본문의 괄호 속에 두면 번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문맥이 끊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는 방식은 미주 아니면 각주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불편함이 있으므로 필자는 일반적으로 각주가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7) 직역과 의역

직역과 의역의 문제는 아마도 번역 작업에서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도대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번역자가 결정할 일이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비교해 보자

(魯)	文童	行狀	土穀祠	賽神	角洋	大洋	長凳	條凳
(A)	문동	행장	사당	신을 제사	소은화	대은화	장등	조등
(B)	문동	행장	투꾸츠	마을굿	각양	대양	장명	타오명
(C)	문동	행장	토곡사	축제	은전	은화	장등	조등
(D)	글방 도련님	행적	사당	마을 축제	작은 은전	큰 은전	장등	조등
(E)	문동	행장	사당	마을 제사	작은 은전	큰 은전	긴 걸상	쪽걸상

‘土穀祠/賽神/角洋/大洋/長凳/條凳’과 같은 말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나 사물이 없거나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의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는 번역자가 얼마나 근사한 말을 찾는가 또는 새로운 말을 창안해내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文童/行狀’ 과 같은 말은 사정이 좀 다르다. 우리 말 사전에서 ‘문동’은 ‘서당에서 함께 글공부하는 아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행장’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에 지낸 일을 기록한 글’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따라서 그냥 직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번역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무조건 번역자에게만 맡겨야 할 것인가? 위에서 보듯이 ‘行狀’을 ‘행장’이라 하지 않고 ‘행적’으로 의역하는 경우, 한글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阿Q正傳〉 자체가 阿Q가 죽은 뒤에 기록됐다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살려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직역이나 의역이나의 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전제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원문에 충실하면서 우리말로도 자연스럽게 정확해야 하며 특히 원작의 정신과 스타일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8) 이론서의 문헌명 통일

이상에서 기술한 것들과 같은 유형의 것은 아니지만 이론서 번역에서는 작품명, 문헌명의 번역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이론서에서 거론되는 수많은 작품과 문헌을 번역자가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 년 전 어떤 이론서를 번역할 때 초고에서 공동 작업자 중 한 사람이 徐志摩의 시집 《翡冷翠的一夜》를 ‘츄고 푸른 밤’이라고 옮긴 적이 있었다. 이미 출판된 어떤 이론서에서는 蔣子龍의 소설 〈赤橙黃綠青藍紫〉를 ‘붉은 등자나무와 황·녹·청·남·자색’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은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번역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田間的의 시 〈她也要殺人〉을 번역서에 따라서는 각기 ‘그녀도 사람을 죽여야 한다’와 ‘그녀 역시 사람을 죽이려하네’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沙汀의 소설 〈呼嘯〉를 ‘호호’라고 하고 吳祖光의 극본 〈畫角春聲〉을 ‘화각춘성’이라고 한 것은 과연 효과적인 번역인가? 심지어는 吳祖光의 극본이라며 각각 〈風雪夜歸人〉, 〈風雨夜歸人〉, 〈風雪夜婦人〉을 소개하고 그 스토리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번역명은 고사하고 대체 어느 것이 정확한 제목인가?

물론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관건은 번역자의 성실성이다 즉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번역자가 모든 작품과 문헌을 직접 확인해가면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는 극히 어려운 일로 필자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 번역한《중국현대산문론 1949-1996》(李曉虹, 2000)에서 하느라고 했지만 대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종의 목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각종 작품과 문헌의 번역명을 목록으로 만들고 내용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는 한편 이미 확인된 것은 모두가 통일해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발표문에 첨부된 한글판 중국현대문학 작품 목록은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수많은 작품이 다 번역되는 것은 아니며, 작품 외에도 논문·연구서·신문기사 등 각종 문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인 만큼 관련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미흡하나마 중국현대문학과 관련된 이론서 및 작품의 번역 출판 상황을 알아보고 번역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미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현대문학 작품 및 이론서 번역은 그 동안 침체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는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더욱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 작품 번역에서 일부 작가 편중 및 중복 장르별 편중, 시기별 편중, 지역별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불균형 등의 현상이 현저한데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목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출판사와 주로 일과성으로 번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번역자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학계의 적극적으로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번역 추천 작품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한다든가, 번역이 필요하지만 아직 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각종 지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든가 학계가 출판사와 공동으로 체계적인 번역을 기획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론서의 번역을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물론 이론서는 우리 학자에 의한 독자적인 저술이 필수적이며 우선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국현대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점차 많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번역이라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연구자나 중문학과 학생들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독자에게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번역 대상 작품의 선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개설서에서 분야별 전문서로, 중문서에서 비중문서로 전문화·다양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번역가 육성 내지는 번역 능력 배양 역시 중요한 문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번역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제들은 번역자 개인의 역량 제고와 책임감 강화에 따라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전문번역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임시성 번역자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언어 분야의 번역과는 달리 인적 자원의 배출 경로가 비교적 단순한 중국현대문학 번역에서는 瓊瑤 등의 대중소설을 주로 번역한 김은신과 같은 이를 비롯해서 대개 중문과 출신이 위주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부 및 대학원에서 번역 관련 과목을 개설한다든가 전문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론과 실천면에서 학생들의 번역 역량을 제고하고 번역가의 사명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번역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공동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중국어의 음역/의역/음의역 문제라든가 중국음의 표기 방식에 대한 모범적인 번역 방식과 합리적이고 공인된 중국음 표기 방법이 하루 바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어 번역 기법의 모색〉(박종한, 1998)과 같은 번역 기법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번역 작품 선정이라든가 번역명 통일을 위한 다양한 목록 작업이 학계 공동의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大頭魚’의 번역에서 보듯이 사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중한사전류도 단순히 일반적인 어휘 사전보다는 전문용어사전, 분류사전, 속담·성어사전, 破音字사전, 역순사전 등 다양한 사전의 개발이 필요하다.

번역에 대한 정부·공익단체·출판계 및 학계의 인식 변화와 협조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면, 상업적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출판사로서는 그때그때 작품과 번역자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번역료 및 원저작료를 가능한 적게 들이려고 한다든가 저작권 처리 문제를 번역자에게 떠넘긴다든가 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 능력을 갖춘 번역자가 최선을 다해 거둔 성과물을 제대로 출판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심혈을 기울인 번역물이 아예 학문적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 좀더 직접적으로는 각 관련 기관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절실한 것이다. 다만 이 짧은 글에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주관적인 희망 한 가지로 글을 맺겠다. 지난 10월 13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중국의 高行健이 선정되었다. 高行健(1940-)은 중편소설 《寒夜的星晨》(1979)과 극작 《絕對信號》(1982)를 시작으로 《車站》, 《野人》, 《模倣者》, 《躲雨》, 《行路難》, 《客巴拉山口》, 《獨白》 등의 극작과 《有只鴿子叫紅脣兒》, 《彼岸》, 《靈山》, 《聖經》 등의 소설을 잇따라 창작하여 지금까지 중장편소설 4편, 극본 16편, 문예논저 3권 등을 포함해서

모두 400여 편의 글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은 발표때 마다 대부분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허무적·반항적인 내용과 주로 모더니즘적 기법을 수용하여 기존의 시간 구조와 무대 공간을 해체하는 파격적인 수법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가 노벨상을 수상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林語堂·艾青·北島 처럼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그의 작품이 대량 번역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의 노벨상수상 자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에게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가 철학적 깊이를 갖춘 모더니즘적 수법을 사용하는 점은, 그간 ‘중국문학’ 하면 李白·杜甫나 〈서유기〉, 〈삼국지〉 또는 魯迅·瓊瑤나 〈아Q정전〉, 〈생활의 발견〉 만을 떠올리던 것을 다소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의 노벨상수상이 우리나라의 중국현대문학 번역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5. 참고문헌

- 김시준, 〈한국에서의 중국현대문학연구 개황과 전망〉, 《중국어문학지》 제4집, 서울 : 중국어문학회, 1997.12, PP.1-8.
- 이장우, 〈중국문학연구사 장편(15) 한국 중국문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중국어문학》 제15집, 경산 : 영남중국어문학회, 1988.12, PP.503-515.
- 이근효 외, 〈중국문학연구사 장편(2) 북해 정래동 교수의 약력과 저술〉, 《중국어문학》 제2집, 경산 : 영남중국어문학회, 1981.5, PP.235-253.
- 최용철, 〈중국문학연구사 장편(26) 백화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제28집, 경산 : 영남중국어문학회, 1996.12, PP.573-602.
- 김하림, 〈魯迅 「광인일기」의 해석과 수용에 관한 연구〉, 《중국현대문학》 제16호, 서울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1999.6, PP.259-278.

- 박종한, 〈중국어 번역 기법의 모색〉, 《중국어문학》 제32집, 경산 : 영남중국어문학회, 1998.12, PP.557-589.
- 魯迅, 〈阿Q正傳·優勝紀略〉, 《魯迅全集》 1,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1981), PP.490-494.
- 魯迅, 〈狗的駁詰〉, 《魯迅全集》 2,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1981), P.198.
- 노신 저, 이가원 역, 《아큐정전》, (서울 : 동서문화사, 1977.10), PP.14-19.
- 루신 · 빠이셴융 · 조츠판, 허세욱 옮김, 《아큐정전, 광인일기/타이빼이사람들/반하류사회》, (서울 : 신영출판사, 1985.12), PP.22-26.
- 루신, 윤화중 · 강계철 옮김, 《아큐정전 외》, (서울 : 학원사, 1983.8), PP.35-39.
- 루쉰, 김시준 옮김, 《루쉰 소설 전집》,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PP.86-90.
- 노신 저, 전형준 역, 《아큐정전》,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6.10), PP.68-74.
- 노신, 이육연 편역, 〈개의 반박〉,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서울 : 창, 1991.3), PP.19-20.
- 노신, 김원중 옮김, 〈개의 지결임〉, 《끝난 곳에서 길은 시작되고》, (서울 : 현대문화센터, 1991.12), PP.55-56.
- 루쉰, 유세종 옮김, 〈개의 반박〉, 《들풀》, (서울 : 솔출판사, 1996.3), PP.116-117.

6. 한글번역판 중국현대문학 관련 서적

- 1) 편의상 서적명을 먼저 표기함
- 2) 확인된 원저명 및 저자명은 한자로 병기함 발췌 번역일 경우 한글번역판 제목에 해당하는 원문명을 병기함.
- 3) 일부 중문서적 번역이 아닌 경우도 있음
- 4) 소설의 경우 무협소설은 제외함

6-1 한글번역판 중국현대문학 이론서(평론서 포함)

- 《100년간의 중국문학中國文學この百年》, 藤井省三 저, 김양수 역, (서울 : 토마토, 1995)
- 《20세기 중국문학의 이해中國新文學整體觀》, 陳思和 지음, 박재우 감수, 외대중국현대문학연구회 옮김, (서울 : 청년사, 1995)

- 《9인의 문예사상馬克思主義文藝思想發展初論》, 樊籬 克興華, 유세중 외 역, (서울 : 청년사, 1991)
- 《곽말약郭沫若》, 郭沫若, 전인초 역, (서울 : 혜원출판사, 1987)
- 《노신평전》, 丸山勝 著, 한무희 역, (서울 : 일월서각, 1982.12)
- 《딩링丁玲傳》, 龔淸宗誠 지음, 김미란 옮김, (서울 : 다섯수레, 1998)
- 《루쉰魯迅雜感選集序外》, 전형준 엮음,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7)
- 《루쉰의 삶과 사랑魯迅傳》, 왕스징王士菁 지음, 유세중 신영복 옮김, (서울 : 다섯수레, 1992.1)
- 《모택동의 문학예술론毛澤東論文藝》, 毛澤東, 이육연 옮김, (서울 : 논장, 1989.5)
- 《문학과 정치 - 현대중국의 문학이론》 중국현대문학전집 20, 호적胡適 외, 김의진/심혜영/성민엽/이광석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 《문학과 정치》, 郭沫若 외, 김의진/심혜영/성민엽 옮김, (서울 : 지학사, 1987)
- 《문학의 이론과 실천文學革命論外》, 이득재 조성 편역, (서울 : 사계절, 1986.8)
- 《문학이론 학습자료文學理論學習資料》(1,2), 북경대 중문과 문예이론 교연실 편 문학이론학습소조 역, (서울 : 친구, 1989.8)
- 《문학이론학습》, 侯建 외 지, 임춘성 역, (서울 : 제3문학사, 1989.9)
- 《사상해방운동 -- 중국문예논쟁사 1980- 》, 성민엽 편, (서울 : 실천문학사, 1988)
- 《사회주의 미학 연습》, 朱存明 王海龍 著, 유세중 역, (서울 : 전인, 1989)
- 《옥달부郁達夫와 왕영하王映霞의 애정 고사》, 전인초,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인간 루쉰》, 왕샤오밍王曉明, 이윤희 옮김, (서울 : 동과서, 1993)
- 《자오수리평전中國の榮光と悲慘 : 評傳趙樹理》, 가마야 오사무釜屋修 지음, 조성환 옮김, (서울 : 동과서, 1999)
- 《중국 30년대작가 평론中國三十年代作家評介》, 丁望 著, 임일호 역,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7.3)
- 《중국 근현대문학운동사中國現代文學史教程/中國當代文學史》, 임춘성 편역, (서울 : 한길사, 1997)
- 《중국 당대문학사 1949-1987中國當代文學史略》, 邱嵐 지음, 중국어문연구회 옮김, (서울 : 고려원, 1994)
- 《중국 당대신시사中國當代新詩史》, 洪子誠 劉登翰, 홍석표 역, (서울 : 신아사, 2000.8)
- 《중국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 -- 구추백의 영향Marxist Literary Thought in China 》, 픽코위쯔Paul G. Pickowicz, 심규호 옮김, (서울 : 청년사, 1991.5)
- 《중국 문학의 현실주의와 반현실주의》, 茅盾 著, 박운석 역, (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8)
- 《중국 소설서사학》, 陳平原, 이종민 역, (서울 : 살림, 1994)
- 《중국 신문학 20년·30년 문단 창상록中國新文學20年·30年文壇 滄桑錄》, 林莽 王平陵 著, 김철수 백정희 공역, (서울 : 범학도서, 1975)
- 《중국 신문학강화中國新文學的源流》, 周作人 講校, 김철수 역주, (서울 : 을유문화사, 1970)
- 《중국 신문학사화現代中國文學史話》, 劉心皇 著, 김철수 역주, (서울 : 동화출판공사, 1983)
- 《중국 신시기문학 입문中國新時期文學の10年外》, 김양수 편역, (서울 : 토마토, 1995)
- 《중국 현대문학 개론中國現代文學流派概觀》, 위홍구 외 지, 정수국 윤은정 역, (서울 : 신아사, 1998.2)
- 《중국 현대문학발전사中國現代文學發展史》, 黃修己 著, 고대중국어문연구회 역, (서울 : 범우사, 1991.2)
- 《중국 현대문학비평사中國現代文學批評史》, 溫儒敏 著, 신진호 역, (서울 : 신아사, 1994)
- 《중국 현대문학사 해설中國現代當代文學二百題》, 朱德發 馮光廉, 김태만 옮김, (부산 : 열음사, 1993.7)
- 《중국 현대문학사中國現代文學史》, 菊地三郎 著, 정유중 이유여 역, (서울 : 동녘, 1986)
- 《중국 현대문학사中國現代文學史》, 李輝英, 최봉원 역, (서울 : 성균관대출판부, 1997)
- 《중국 현대문학운동사》, 朱德發 외 엮음, 임춘성 옮김, (서울 : 전인, 1989)
- 《중국 현대산문론 1949-1996中國當代散文審美建構》, 李曉虹 지음, 김혜준 옮김, (서울 : 범우사, 2000.2.)

- 《중국 현대산문사中國現代散文史稿》, 林非 지음, 김혜준 옮김, (서울 : 고려원, 1993.12)
《중국 현대소설사1949-89中國當代小說史》, 金漢, 김정호 옮김,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6)
《중국 현대소설유파사中國現代小說流派史》, 嚴家炎 지, 박재우 역, (서울 : 청년사, 1997)
《중국 현대시의 이해現代詩人及流派瑣談》, 錢光培 向遠 공저, 박운석 역, (대구 : 중문출판사, 1998)
《중국 현대작가론1》, 趙聰 지음, 박재연 역, (서울 : 온누리, 1988.1)
《중국 현대작가론當代中國大陸作家評介/當代中國作家風貌/新文學作家列傳》, 黃南翔/彥火/趙聰 지음, 박재연 옮김, (서울 : 온누리, 1985.8)
《중국 현대희극사中國現代戲劇史稿》, 陳白塵 董健 주편, 한상덕 역, (서울 : 한국문화사, 1996)
《중국의 노신연구中國魯迅研究的歷史和現狀/吶喊·彷徨 綜論/魯迅在中國文化史上的地位和作用》, 王富仁 지음, 김현정 옮김, (부산 : 세종출판사, 1997)
《천국은 여인의 가슴에 있다 -- 루쉰, 삶을 나눈 5인의 여자》, 南雲智 지, 정성호 역, (서울 : 우석, 1993)
《현대 중국의 현실주의문학新文學現實主義流變》, 溫儒敏 지음, 김수영 옮김,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1.4)
《현대 중국작가 평전當代中國作家風貌/當代中國大陸作家評介/新文學作家列傳》, 彥火/黃南翔/趙聰, 박재연 역, (서울 : 백산서당, 1986)
《형상과 전형》, 蔣孔陽 지, 김일평 윤수영 역, (서울 : 사계절, 1987)

6-2 한글번역판 중국 현대소설 작품

- 《1587, 아무 일도 없던 해》, 레이황, 박상이 역, (서울 : 가지않은길, 1997)
《80년대 전중국 최고작품상 수상 작품집 (1,2)》, 서회중徐恢中 외, 장지민 역, (서울 : 문학사상사, 1990)
《가家》, 파금바진 지, 박난영 역, (전주 : 이삭문화사, 1985)
《가家》, 파금바진 지음, 강계철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세계, 1985)
《가家》, 파금바진 지음, 최보섭 옮김, (서울 : 청람문화사, 1985)
《가家》, 파금바진, (서울 : 해누리, 1989)
《가을의 노래》, 瓊瑤 지, 임계재 옮김, (서울 : 썩크북, 1999.6)
《가지 끝에 외기리기雁兒在林梢》, 景玉瓊瑤 지, 강정일 역, (서울 : 삼우당, 1987)
《갈망渴望》(상,하), 정만룡鄭萬隆/이효명李曉明 지, 이형기 역, (서울 : 대륙, 1993)
《강청》, 珠珊, 심철호 역, (서울 : 창한, 1989)
《강희대제 - 제1부 탈궁》, 이월하, (서울 : 출판시대, 2000.7)
《개띠 원숭이》, 연변인민출판사, (서울 : 책이있는풍경, 1994)
《개혁자》, 장계, 심성중 역, (서울 : 객장, 1990)
《거꾸로 가는 마차》, 장시기 편, (서울 : 들녘, 1992)
《거상 여불위》(1,2), 정시양명曾祥明 지, 김하림 옮김, (서울 : 숲, 1999.6)
《겨울 눈 하얀 사랑》, 景玉瓊瑤, 정성호 역, (서울 : 문원북, 1995)
《겨울의 동화冬天的童話》, 위뤄진遇羅錦 지, 이가춘 역, (서울 : 다섯수레, 1992.12)
《계절풍 -- 대만현대작가단편선》, 왕뱌후 외, 고혜숙 역, (서울 : 고려원, 1988.12)
《고독한 사람》, 노신魯迅, (서울 : 푸른세대, 1995)
《고련苦戀》, 백화白樺 외 지음, 박재연 역, (서울 : 백산서당, 1987)
《고령가 살인 사건牯嶺街少年》, 오담여 지, 중소추 역, (서울 : 서적포, 1992.8)
《고사신편故事新編》, 노신魯迅 지, 우인호 역, (서울 : 신원문화사, 1996)
《고향 외故鄉》 동서세계문학전집, 노신魯迅 외, 이가원 역, (서울 : 동서문화사, 1983)
《고향/침륜 외故鄉/沉淪》 세계단편문학전집 21, 노신魯迅/육달부郁達夫 외, 김시준 역, (서울 : 정한출판사, 1976)
《공개된 연애편지公開的情書》, 이유허劉靑峰, 이가춘 역, (서울 : 다섯수레, 1992)

- 《공허한 구름》(1-5), 풍풍 지음, 조성우 역, (서울 : 명문당, 1994.7)
《광인의 일기》, 노신魯迅 저, (서울 : 푸른세대, 1995)
《광인의 일기》, 노신魯迅 저, (서울 : 해누리, 1994)
《광인일기》, 노신魯迅 저, 김남주 역, (서울: 도서출판 눈, 1993.10)
《광인일기》, 노신魯迅, (서울 : 여강, 1991)
《광인일기狂人日記》 동서문고 303, 노신魯迅 저, 이가원 역, (서울 : 동서문화사, 1977.9)
《광인일기狂人日記》 자이안트 문고 142, 노신魯迅 저, 이가원 역, (서울 : 문공사, 1982)
《구름꽃 하나彩雲飛》, 경요瓊瑤 저, 유소영 역, (서울 : 새터, 1993)
《국두菊豆》, 유항柳恒 저, 문홍복 옮김, (서울 : 모아, 1990)
《국두菊豆》, 유항柳恒 저, 장기옥 옮김, (서울 : 은광사, 1991)
《그 이름 다시는 부르지 못하네》, 경요瓊瑤 저, 차숙영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0)
《그대 그리움으로 난 물들고》, 경요瓊瑤, (서울 : 시성, 1993)
《그대 영혼 위에 뜨는 별》, 경요瓊瑤 저, (서울 : 다솜미디어, 1995)
《그대가 진정 날 사랑한다면》, 경요瓊瑤, (서울 : 열린지성, 1995)
《그림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박운석 역, (서울 : 지식산업사, 1987)
《그의 죽음을 슬퍼하다》, 노신魯迅, 박성순 역, (서울 : 책이있는풍경, 1994)
《금잔화》, 경요瓊瑤 저, 김은신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2)
《금지된 운명》, 경요瓊瑤 저, 강함길 역, (서울 : 혜민, 1994)
《기린아, 네 눈이 너무 높구나 -- 소설 공자孔子》(상,하), 양서안楊書案 지음, 공상철 옮김, (서울 : 새터, 1991)
《기차는 새벽에 도착한다》, 취신후아/스메이쥬 지음, 차경석/고주하 편역, (서울 : 대인교육, 2000)
《기황후奇皇后傳 : 高麗女子元宮封后傳奇》(상,하),畢珍 원작, 김귀안 옮김, (서울 : 문화문고, 1995)
《깊고 슬픈 이별》, 경요瓊瑤 저, (서울 : 청운, 1995)
《꽃다발을 안은 여자透明的紅蘿蔔》, 모안莫言 저, 이경덕 역, (서울: 호암, 1993.12)
《꽃은 열매에게 이렇게 묻는다》, 장강강張抗抗 저, 윤진 역, (서울 : 말길)
《피꼬리를 기다리는 빈 뜰》, 장관화臧官華 저, 김현진 역, (서울 : 행림, 1985)
《꾸냥櫻子姑娘》(1,2), 서속徐速 저, 박재연 역, (서울 : 성하, 1992.6)
《꾸에이시양歸鄉》, 황광남 저, (서울 : 민예사, 1992)
《꿈의 옷》, 경요瓊瑤, (서울 : 한웅, 1992)
《나는 사랑이다》, 장량, (서울 : 나다기획, 1992)
《나의 남자 파충류 씨 나비》, 장만취엔 지음, 이준희 역, (서울 : 가람기획, 1999.4)
《낙타상자駱駝祥子》 중국현대문학전집 5, 라오서老舍 지음, 유성준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날개없는 생이라도》, 쟁평시, 강승원 옮김, (서울 : 동광출판사, 1988)
《남과 흑藍與黑》(상,하), 왕람王藍 저, 이상애 역, 1967.
《남자의 반은 여자男人的一半是女人》, 장현량張賢亮 저, 김의진 역, (서울 : 미학사, 1991)
《남자의 반은 여자男人的一半是女人》, 장현량張賢亮 저, 리광 역, (서울 : 새론문화사, 1994)
《남자의 절반은 여자男人的一半是女人》, 장현량張賢亮 저, 정성호 역, (서울 : 태광문화사, 1986)
《남자의 절반은 여자男人的一半是女人》, 장시엔리양張賢亮 저, (서울 : 문학사상사, 1994)
《남합呐喊》, 노신魯迅 지음, (서울 : 하서, 1999.07.20)
《낭원》, 趙玫 저, 장미경 역, (서울 : 다모아, 1995)
《내 남자는 파충류》, 장만취엔 지음, 이준희 역, (서울 : 가람기획, 1999.5.)
《내게는 이름이 없다我沒有自己的名字》, 위화余華, 이보경 역, (서울 : 푸른숲, 2000.5)
《내일을 살아가는 이야기》, 이정당, (서울 : 깊이와넓이, 1994)
《너 없는 사랑》, 경요瓊瑤 지음, 엄효섭 옮김, (서울 : 삼진기획, 1995.10.14.)
《너는 들꽃으로 나는 바람으로星 月亮 太陽》, 서속徐速 저, 정희국 역, (서울 : 청조사, 1987)
《너를 사랑한 슬픔, 너를 사랑한 기쁨》(1-2), 瓊瑤, 유종환 옮김, (서울 : 문일, 1998.12)
《너의 가슴에 별로 뜨리秋海棠》, 진수구秦瘦鷗 저, 정영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87)
《너의 흔적, 너의 의미彩雲飛》, 경요瓊瑤 저, 김은신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2)
《너의 흔적, 너의 의미彩雲飛》, 경요瓊瑤 저, 정소영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86)

- 《노는 것 만큼 신나는 것도 없다玩的就是心跳》, 왕쑤어王朔 지음, 박재연 옮김, (서울 : 빛샘, 1992.7)
- 《노빙화魯氷花》, 종조정鍾肇政 지, 한명운 옮김, (서울 : 꿈이있는집, 1993)
- 《노신》 사루비아 문고 60, 노신魯迅 지, 허세욱 역, (서울 : 범우사, 1983)
- 《노신》 세계문학대전집, 노신魯迅 지, 허세욱 역, (서울 : 신영출판사, 1984.)
- 《노신》 세계문학대전집 12, 노신魯迅 지, 허세욱 역, (서울 : 삼성언어연구원, 1982)
- 《노신》 우리시대의 세계문학 20, 노신魯迅 지, 이가원 역, (서울 : 계몽사, 1988)
- 《노신단편소설선집》, 노신魯迅 지, 김광주 외 역, (서울 : 서울출판사, 1946)
- 《노신단편집》, 魯迅, 화국양 역, (서울 : 상서각, 1973)
- 《노신문집》 1-6, 노신魯迅 지, 竹內好 역주, 김정화/한무희 공역, (서울 : 일월서각, 1985-1987)
- 《노신소설전집》 중국문학총서 1, 노신魯迅 지, 김시준 역, (서울 : 한겨레, 1986)
- 《노신소설전집》, 노신魯迅 지, 이가원 역, (서울 : 정연사, 1963)
- 《노신의 고향 외》, 노신魯迅, 허벽 역주,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 《노신작품》 세계문학대전집 22, 노신魯迅 지, 성원경 역, (서울 : 태극출판사, 1980.4)
- 《노을꽃》, 가홍柯興 지, 이기형 역, (서울 : 산호, 1994)
- 《노을彩雲滿天》, 경요瓊瑤 지음, 이상훈 옮김, (서울 : 빛샘, 1992)
- 《녹화수綠花樹》, 장현량張賢亮, 김영옥 역, (서울 ; 덕수출판, 1993)
- 《누에도 빵있을 먹지 않는디春蠶》, 모순茅盾 지, 함종인/이창인 외, (서울 : 문덕사, 1989)
- 《눈물꽃 겨울사랑雪珂》, 경요瓊瑤 지, 이진한 역, (서울 : 영인미디어, 1992.8)
- 《눈물로 세운 사랑》, 경요瓊瑤 지, 윤시원 옮김, (서울 : 역조출판사, 1998)
- 《눈물속에 핀 꽃》, 경요瓊瑤 지, 안혜연 역, (서울 : 혜민, 1994)
- 《눈보라치는 흑룡강今夜有暴風雪》, 양효성梁曉聲/이존보李存葆 지, (서울 : 한울림, 1989)
- 《뉴욕, 지옥이나 천당이냐北京人在紐約》, 조계림曹桂林 지, 고애란 옮김, (서울 : 예술문화원, 1994)
- 《뉴욕의 북경인北京人在紐約》, 차오꾸이린曹桂林 지, (서울 : 지영사, 1996)
- 《다시 없는 사랑》, 경요瓊瑤 지, 엄효섭 역, (서울 : 청운, 1994)
- 《다이제스트 중국현대단편소설新時期短篇小說擷英1977-1985》, 윤휘정 외 옮김, (부산 : 부산대 중문과, 1998.12)
- 《단 한 사람의 사랑》, 경요瓊瑤, 엄효섭 옮김, (서울 : 삼진기획, 1998)
- 《단 한번의 사랑 단 한번의 욕망》, 릴리안 리李碧華, 조남진/송문규 역, (서울 : 명진출판, 1992)
- 《달로 날아간 항아故事新編》, 루쉰魯迅, 차경섭 옮김, (서울 : 대인교육, 1999)
- 《달빛은 쏟아지고》, 蕭麗紅 지, 남옥희 역, (서울 : 신라원, 1996)
- 《달큰한 쇠 비린 쇠》, 양영명楊咏鳴 지음, 장지민 역, (서울 : 문학과사상사, 1990)
- 《대륙의 딸》, 장영張戎, 노혜숙 역, (서울 : 대흥, 1993)
- 《대륙의 딸》, 장용張戎, 노혜숙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85)
- 《대륙의 딸들》, 장용張戎, (서울 : 금토출판사, 1999.11)
- 《대지의 비극》, 巴金 지음, 홍영의 박정봉 역, (서울 : 범조사, 1955)
- 《더 깊은 사랑新月格格》(1-2), 경요瓊瑤 지, 김은신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5)
- 《돌아가야 할 곳을 찾아서人啊,人!》, 戴厚英 지, 김국자 역, (서울 : 예본, 1989)
- 《동유기》, 오원태 지, 진기환 역, (서울 : 지영사, 2000.7.15)
- 《루쉰 소설 전집》, 루쉰魯迅, 김시준 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루쉰 소설 전집吶喊/彷徨/故事新編》 중국현대문학대전집 1, 루쉰魯迅, 김시준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 《루어투어 시양駝駝祥子》(상,하), 라오서老舍 지음, 최영애 옮김, 김용옥 풀음, (서울 : 통나무, 1986)
- 《마름풀꽃 연가》, 경요瓊瑤 지, 황병국 역, (부산 : 선영사, 1993)
- 《마름속의 집 한 채, 그 안에 사랑》, 경요瓊瑤 지음, 이상훈 옮김, (서울 : 빛샘, 1992)
- 《만족》, 장량, (서울 : 보물샘, 1994)
- 《맑은 하늘에 눈물이》(상,하), 경요瓊瑤 지, 윤진 옮김, (서울 : 박우사, 1995.5.)
- 《매화 애가》, 瓊瑤 지, 나은진 역, (서울 : 혜민, 1994)
- 《매화梅》, 라선, 연변인민출판사 역, (서울 : 물결, 1988)

- 《먼 훗날의 타인秋海棠》, 진수구秦瘦鷗 지, 정영 역, (서울 : 홍익출판사, 1988)
《모슬렘의 달穆斯林的葬禮》(1-3), 곽달霍達 지음, 김주영 역, (서울 : 전예원, 1994)
《모자쓴 혁명가天雲山傳奇/人到中年》, 로언주魯彥周/심용謙容 지음, 최향련/김영 옮김, (서울 : 정신 세계사, 1989.4)
《몽당치마 : 중국국가문학상수상작》, 림원춘, (서울 : 일중사, 1994)
《무지개빛 여자女強人》, 주수연朱秀娟 지, 박하정 역, (서울 : 문조사, 1992.11)
《물과 불의 게임》, 야당, 우종길 역, (서울 : 도서출판 창, 1993)
《물망초》, 경요瓊瑤 지, 이정수 역, (서울 : 파라, 1992)
《물위의 사랑》(1-3), 경요瓊瑤 지, (서울 : 개미, 1999.3)
《물위의 연가浮出海面/痴人》, 왕쑤어王朔 지음, 박재연 옮김, (서울 : 빛샘, 1992.10)
《미안생》(상,하), 이어李漁 지, 강영수 편, (서울 : 까치, 1992.7)
《바다메우기》, 화평 지, 이등연 역, (서울 : 동지출판사, 1990)
《바다새는 언제 잡드는가》, 경요瓊瑤 지, 차숙영 역, (서울 : 홍익출판사, 1989)
《바람꽃이 된 여자》, 서숙 지, 박재연 옮김, (서울 : 성하출판, 1995)
《바람타는 수선화》, 경요瓊瑤 지, 황병국 역, (서울 : 세기, 1992)
《반삼국지反三國志》(상,중,하), 주대황周大荒 지, 정현우 편역, (서울 : 명문당, 1992.8)
《반생연半生緣》, 張愛玲, 권효진 옮김, (서울 : 문일, 1999.1.18.)
《반하류사회/대북사람들半下流社會/臺北人》 중국현대문학전집 16, 자오쯔관趙滋蕃/바이시엔융白先勇 지음, 허세욱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백록원白鹿原》(1-5), 첸중스陳忠實 지음, 임홍빈 강영래 역, (서울 : 한국문원 1997)
《법문사의 비밀》, 웨난 외 지음, (서울 : 일빛, 2000.8)
《베이징의 아이들》, 샤오홍잉, 남중훈 역, (서울 : 열사람, 1993.11)
《벼랑위에 서서懸崖上》, 鄧友梅 지음, 이등연 옮김, (서울 : 우아당, 1988)
《변방의 도시/이가장의 변천 外邊城/李家莊的變遷》 중국현대문학전집 6, 선충원沈從文/자오수리趙樹理 지음, 심혜영/김시준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변성邊城》, 선충원沈從文 지음, 김동성 역, (서울 : 한울, 1997)
《변신하는 인형活動變的人形》 중국현대문학전집 15, 왕명王蒙 지음, 성민엽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별은 잠들지 않는다浮躁》, 賈平凹, 오세경/김경림 역, (서울 : 제3기획, 1994)
《보슬비》, 왕아언, 이영구, (서울 : 우아당, 1980)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晚霞消失的時候》, 예평禮平 지음, 박재연 옮김, (청주 : 온누리, 1987.10)
《봄춘》, 과금巴金 지, 연변인민출판사 편집부 옮김, (서울 : 백양출판사, 1995)
《부용진芙蓉鎮》, 고화古華 지, 김서기/황대연 공역, (서울 : 서당)
《부용진芙蓉鎮》, 고화古華 지, 신원기희 역, (서울 : 예본, 1988)
《부평초 -- 반금련》(1,2), 장봉홍張鳳洪 지, 김연순 역, (서울 : 혜민, 1992)
《북경 25시》, 陳若曦 지음, (서울 : 신한사, 1979)
《북경의 어느 겨울》, 하지염夏之炎 지, 황대연 역, (서울 : 한진출판사, 1977)
《북대황》, 매재민 지, 최홍수 역, (서울 : 디자인하우스 출판부, 1992.7)
《불타는 배火船》, 위세상魏世祥 지, 이등연 역, (서울 : 우아당, 1990)
《불타는 영혼血色黃昏》(전3권), 라오꾸이老鬼 지음, 박재연 옮김, (서울 : 친구, 1992.9)
《붉은 바위紅岩》(상,중,하), 나광빈羅廣斌/양익언楊益言 지음, 편집부 옮김, (서울 : 일월서각, 1991.10)
《붉은 수수밭紅高粱》, 막언莫言 지, 홍희 역, (서울 : 동문선, 1989)
《붉은 수수밭紅高粱》, 모엔莫言 지, 심혜영 역,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7)
《붉은 진달래》, 안치민, 김미정 옮김, (서울 : 세종출판사, 1994)
《붉은 콩紅豆 -- 중국현대애정소설선》, 종박宗璞 등 지, 이영구/박재우 등 역, (서울 : 우아당, 1988)
《비련초》, 경요瓊瑤 지, 김은신 역, (서울 : 홍익출판사, 1992)
《비창》, 경요瓊瑤 지, 민정기 역, (서울 : 빛샘, 1993.10.)
《빵나무 여자》, 장소한 지, 조유진 역, (서울 : 늘봄, 1998.12.15.)
《뽕얼리水兒》, 경요瓊瑤 작, 박하정 옮김, (서울 : 한소리, 1992.9)

- 《사람아 아, 사람아!人啊, 人!》, 戴厚英 著, (서울 : 세양, 1992)
《사람아 아, 사람아!人啊, 人!》, 戴厚英 著, 신영복 역, (서울 : 다섯수레, 1991)
《사랑 그 하나만으로》, 경요瓊瑤, (서울 : 길출판사, 1996)
《사랑 속의 사람 男人的一半是女人》, 장현량張賢亮 著, 김세민 역, (서울: 도서출판 춘추원, 1992.11)
《사랑과 미움》, 경요瓊瑤 著, 우현민 역, (서울 : 동아, 1987)
《사랑과 영원의 목소리》, 瓊瑤 著, 이정섭 역, (서울 : 본미디어, 1995.12.)
《사랑의 눈빛》, 瓊瑤 著, 박하정 옮김, (서울 : 다솜미디어, 1995)
《사랑의 눈 愛果情花》, 경요瓊瑤 著, 유전귀 역, (서울 : 다솜미디어, 1995)
《사랑의 시대》, 瓊瑤, 김수영 역, (서울 : 무크출판사, 1996)
《사랑의 절벽》, 경요瓊瑤 著, 민정기 역, (서울 : 빛샘, 1993.12)
《사랑이여 고독이여》, 경요瓊瑤, 강정일 역, (서울 : 지성출판사, 1986)
《사랑이여 안녕霸王別姬》, 릴리안리李碧華 著, 김정숙 유운석 역, (서울 : 빛샘, 1993)
《사요나라, 짜이 지엔莎啞娜啦, 再見》, 황춘명黃春明 著, 김호철 역,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3)
《사회주의적 범죄는 즐겁다一半是火焰,一半是海水》, 왕쑤어王朔 지음, 박재연 옮김, (서울 : 들꽃세상, 1991.3)
《산향거변山鄉巨變》(상,하) 중국현대문학전집 11-12, 조우리뽀周立波 지음, 이우정/조관희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살부殺夫》, 이양李昂 著, 노혜숙 역, (서울 : 시선, 1991)
《살아간다는 것活着》, 여화余華, 백원담 옮김, (서울 : 푸른숲, 1997)
《상처로 남은 사랑》, 瓊瑤 著, 김정수 옮김, (서울 : 삼진기획, 1999)
《상흔傷痕 -- 중국대륙 현대단편소설 선집》, 노신화盧新華 외, 박재연 편역, (서울 : 세계, 1985.10)
《새벽강은 아침을 기다린다古船》(상,하), 장위張偉, 어세경/김경림 역, (서울 : 풀빛, 1994)
《새벽이 오는 깊은 밤子夜》 중국현대문학전집 3, 마오둔茅盾 지음, 김하림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생과 사》(상, 하), 鄭念 著, 홍희 역, (서울 : 심지, 1987)
《샤이정화塞金花》, 거썩 지음, 이주현 역, (서울 : 투영, 1998.7)
《서시》, 남궁박 지음, 이익희 옮김, (서울 : 삼천리, 1994)
《서태후慈禧全傳》(1-12), 高陽, 정성호 역, (서울 : 명문당, 1996-1998)
《선택》, 파이허우잉戴厚英 著, 유병래 역 (서울: 지리산, 1992)
《설매화雪梅花》, 경요瓊瑤, (서울 : 길출판사, 1996)
《성성초星草》, 凌力, 홍희 역, (서울 : 동문선, 1991)
《星願》, 한명준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성경, 2000)
《세상사는 연기와 같다世事如烟》, 余華위화 著, 박자영 역(서울: 푸른숲, 2000)
《세상을 훑친 거인》, 오함, (서울 : 지성문화사, 2000.06.01)
《세상의 단 한 사람》, 경요瓊瑤 著, 엄효섭 역, (서울 : 삼진기획, 1995)
《소설 노자》(상,하), 진신성秦新成 외 著, 이윤희 역, (서울 : 범인문화사, 1998)
《소설 노자》(상,하), 진신성秦新成 외 著, 이철준 역, (서울 : 여강출판사, 1993)
《소설 불로초》(상,하), 주룽가, (서울 : 해누리, 1994)
《소설 소동파》(상), 오하일 著, (서울 : 동서춘추, 1992.11)
《소설 양산박 송강》(상,하), 이등조 著, 김철중 역, (서울 : 삼천리, 1992)
《소설 여태후》, 오하일 著, 이경희 역, (서울 : 줄기, 1994)
《소설 전한지》(1-5), 채동번 지음, 김영무/방원성 옮김, (서울 : 선영사, 1992.9)
《소설 중국》, 鄭義 著, 진영희 역, (서울 : 동연, 1993)
《소정인 : 다이어트사랑》, 선웨이,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3.22)
《소정인 1 : 사탄의 사랑》, 지잉,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
《소정인 2 : 사랑은 깊이 잠들고》, 타이샤오체,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
《소정인 3 : 너무 먼 연인》, 李纓,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
《소정인 4 : 사랑이라면 내게 맡겨》, 카이샤오체,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
《소정인 7 : 기묘한 인연》, 주오칭웬,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3.22)

- 《소정인 8 : 플레이보이 길들이기》, 주오칭웬,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3.22)
《소정인 9 : 말괄량이 사랑일기》, 셴웨이, (서울 : 초록배매직스, 2000.3.22)
《송가황조宋家皇朝》, 나계에 저, 한명준 역, (서울 : 반도기획, 1997)
《수선화》(1-3), 경요瓊瑤 저, (서울 : 개미출판사, 1998)
《순수의 숲》 장소한 저, 조유진 역, (서울 : 늘봄, 2000.8)
《숨어있는 여자》, 운정雲菁 저, 박순홍 옮김, (서울 ; 청조사, 1995)
《스물 한 살의 여자와 스물 한 명의 남자》, 지후야사 저, 구은영 옮김, (서울 : 북음, 1994)
《슬픈 인연》, 경요瓊瑤 저, 한소현 역, (서울 : 개미, 1997)
《습관사망習慣死亡》, 장현량張賢亮 지음, 정재량 옮김, (서울 : 빛샘, 1993)
《시린호트에 지다血色黃昏》 1-3, 노귀老鬼 지음, 박재연 역, (서울 : 이론과 실천, 1991.2)
《시인의 죽음詩人之死》(상,중,하), 다이호우잉戴厚英 저, 유병례 역, (서울 : 지리산, 1992.8)
《시인의 죽음詩人之死》(상,하), 다이호우잉戴厚英 저, 양은희 외 역, (서울 : 다섯수레, 1992.8)
《시협, 그러나 내 청춘의 열일곱살》, 샤오후잉 저, 남종훈 역, (서울 : 열사람, 1991)
《心動》, 장애아, 김형욱 역, (서울 : 성경, 2000)
《심씨네 가족》, 蔣法武, 김재국 역, (부산 : 세종출판사, 1995)
《쌍화강에 버려진 일장기》, 설목雪墨, 임홍빈 옮김, (서울 : 고려원, 1995)
《쓴웃음》, 박선석, (서울 : 자유로, 2000.5)
《쏟아진 날의 사랑》, 장정죽 외, 이성오 역, (서울 : 제3문학사, 1991)
《아, 압록강》, 葉雨蒙 저, 김택 옮김, (서울 : 여명, 1996)
《아Q정전 광인일기 외》, 노신魯迅 지음, 김석준 역, (서울 : 하서, 1994)
《아리고 시린 우리들의 첫사랑》, 경요瓊瑤 저, 정성호 역, (서울 : 참빛출판사, 1993)
《아리고 시린 우리들의 첫사랑》, 경요瓊瑤 저, 한관우 역, (서울 : 참빛출판사, 1989)
《아버지를 찾습니다家變》, 왕원싱王文興, 송승석 옮김, (서울 : 강, 1999)
《아버지의 산, 어머니의 바다》, 주자청朱自清/옥달부郁達夫, (서울 : 범우사, 1999)
《아이들의 왕孩子王/棋王/樹王》, 아청阿城 지음, 박소정 옮김, (서울 : 지성의 샘, 1993)
《아침은 너무 늦다》, 巴金 郭沫若 魯迅, 최용국 옮김, (서울 : 창, 1995)
《아큐이야기》, 魯迅, (서울 : 글동산, 1994.12)
《아큐정전 광인일기 외阿Q正傳,狂人日記》, 노신魯迅 저, (서울 : 하서, 1994)
《아큐정전 광인일기》, 魯迅, (서울 : 일신서적, 1995.1)
《아큐정전 광인일기阿Q正傳,狂人日記》, 노신魯迅 저, (서울 : 어문각, 1986)
《아큐정전 광인일기阿Q正傳,狂人日記》, 루쉰魯迅 저, 이민수 역, (서울 : 혜원출판사, 1997)
《아큐정전 외吶喊/彷徨/故事新編》 학원세계문학 44, 루쉰魯迅, 윤화중/강계철 옮김, (서울 : 학원사, 1983.8)
《아큐정전 외阿Q正傳/狂人日記/孤獨者/故鄉/臺北人/半下流社會》, 루쉰魯迅/빠이셴용白先勇/조즈관趙滋蕃 저, 허세욱 옮김, (서울 : 신영출판사, 1985.12)
《아큐정전, 광인일기阿Q正傳,狂人日記》, 노신魯迅 저, 이가원 역, (서울 : 동서문화사, 1978)
《아큐정전阿Q正傳》 동화 세계의 문학대전집 7, 노신魯迅 저, 김광주 역, (서울 : 동화출판사, 1970)
《아큐정전阿Q正傳》 동화문고 27, 노신魯迅 저, 김광주 역, (서울 : 동화출판사, 1970)
《아큐정전阿Q正傳》 범우 소설문고, 노신魯迅 저, 허세욱 역, (서울 : 범우사, 1976)
《아큐정전阿Q正傳》 세계문학대전집 23, 노신魯迅 저, 김하중 역, (서울 : 금성출판사, 1981)
《아큐정전阿Q正傳》 주우세계문학 69, 노신魯迅 저, 강계철, (서울 : 학원사, 1984)
《아큐정전阿Q正傳》 주니어 세계문학 11, 노신魯迅 저, 이문희 역, (서울 : 금성출판사, 1983)
《아큐정전阿Q正傳》 창비교양문고 42, 노신魯迅 저, 전형준 역,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6.10)
《아큐정전阿Q正傳》 한권의 책 45, 노신魯迅, 윤화중 옮김, (서울 : 학원사, 1987.1)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서울 : 교육문화사, 1989)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서울 : 눈, 1993)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서울 : 풍림출판사, 1988)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김준배 옮김, (서울 : 학문사, 1995)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성원경 역, (서울 : 명문당, 1975)

-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성원경 역, (서울 : 삼중당, 1975)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이가원 역, (서울 : 동서문화사, 1977.10)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이문희 역, (서울 : 금성출판사, 1985)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장기근 역, (서울 : 범조사, 1977)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정노영 역, (서울 : 홍신문화사, 1994)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조성하 역, (서울 : 소담출판사, 2000.8)
《아큐정전阿Q正傳》, 노신魯迅 저, 허세욱 역, (서울 : 범우사, 1978)
《아큐정전阿Q正傳》, 魯迅, (서울 : 신원문화사, 1996.6)
《아큐정전阿Q正傳》, 魯迅, 임영옥 옮김, (서울 : 상록수, 1999.05.03)
《아큐정전阿Q正傳》, 루신魯迅 저, 안영신 역, (서울 : 청북사, 1993)
《아큐정전阿Q正傳》, 루신魯迅 저, 정구창 역, (서울 : 교학사, 1999.10)
《아름다운 깊은 사랑却上心頭》, 경요瓊瑤 지음, 박용현 역, (서울 : 서원, 1989)
《안개 계절의 비가腐蝕》, 심덕홍沈德鴻(茅盾), 강영 역,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86)
《안개, 바람 그리고 비聚散雨依依》, 경요瓊瑤 원작, 임재하 번안, (서울 : 홍익출판사, 1986.4)
《안개꽃 은빛 사랑》, 경요瓊瑤 저, 최현석 역, (서울 : 덕수출판, 1997)
《안녕 친구여 -- 장현량 성장기 소설早安!朋友》, 장현량張賢亮 지음, 박재연 역, (서울 : 한겨레, 1989.5)
《양가秧歌》, 장애령張愛玲 저, 하정옥 역, (서울 : 지학사, 1987)
《애련》, 경요瓊瑤 저, (서울 : 명경, 1992.7)
《애정 삼부곡愛情三部曲》(상,하), 파금巴金 저, 박수인 옮김, (서울 : 일월서각, 1986)
《애정시대》(1,2), 경요瓊瑤 저, 박주원 옮김, (서울 : 성경, 1999.3)
《야생화船》, 경요瓊瑤 지음, 이여천 옮김, (서울 : 대현문화사, 1992.8)
《야합野合》, 취춘리曲春禮 저, 임홍빈 역, (서울 : 배영사, 1994.9.1)
《야행화차 夜行貨車》 중국현대문학전집 17, 천잉젠陳映眞 외 지음, 유중하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양의 문》(상,하), 이페보李佩甫 저, 김희옥 옮김, (서울 : 집영출판사, 2000.1)
《어느 작은 도시의 사랑小城之戀》, 왕안억王安憶 지음, 이등연 옮김, (서울 : 우아당, 1990)
《어른도 함께 읽는 개구쟁이 이야기頑皮故事集/淘氣故事集》, 호우원용 지음, 변성규 옮김, (서울 : 지식산업사, 1999.9)
《어젯밤 등불昨夜之燈》, 경요瓊瑤 저, 박승훈 역, (서울 : 대유, 1992.9)
《어결 축천무후》, 임어당林語堂 지음, 조영기 옮김, (서울 : 예문당, 1995)
《여백》(1,2), 경요瓊瑤 저, 우찬휘 한미화 공역, (서울 : 반도기획, 1999)
《여병자전/홍두/이혼女兵自傳/紅豆/離婚》 세계문학전집 19, 사빙영謝冰瑩 외 저, 김광주 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64)
《여인, 돌아오다》, 瓊瑤 저, 김창현 역, (서울 : 정경출판사, 1994)
《여자는 꿈꾸지 않는다渴望》(상,중,하), 정완룡鄭萬隆/리샤오밍李曉明 저, 박하정 역, (서울 : 지리산, 1993.2)
《여자들이 꿈꾸는 세상 여자들이 꿈꾸는 사랑》(1-2), 왕하이링 저, (서울 : 이야기, 2000.6.7)
《여자의 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웨이웨이, (서울 : 예문사, 1999.5)
《여지견작품집/중년이 되어/천운산전기茹志鵬作品集/人到中年/天雲山傳奇》 중국현대문학전집 13, 루즈지엔茹志鵬/천룽궈容/루옌조우魯彥周 지음, 이영자/김용운/김의진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연호煙壺》, 鄧友梅 저, 홍희 역, (서울 : 동문선, 1990)
《영혼을 사로잡은 사랑의 신》, 이벽화李碧華 저, 차경섭/이경림 역, (부산 : 선영사, 1996)
《영혼의 사랑》, 경요瓊瑤, 김은신 옮김, (서울 : 이오스, 1999)
《예환지/침륜 외倪煥之/沉淪》 중국현대문학전집 2, 예성타오葉聖陶/위따푸郁達夫 지음, 이영구/전인 초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왕시경의 새로운 경험》, 장요우더, 유중하 역,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0)
《왕씨네 음력절》, 아성阿城 지음, 장지민 역, (서울 : 문학과사상사, 1990)

- 《요술 조롱박의 비밀》, 하의 외 저, 이효립 역, (서울 : 대교출판, 1993)
《郁達夫 단편집》, 郁達夫 저, 이석호 역, (서울 : 범조사, 1974)
《원녀怨女》, 장애령張愛玲 지음, 하정옥 역, (서울 : 지학사, 1987)
《유리꽃》, 경요瓊瑤 저, 김은신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2.8)
《유리담장》, 경요瓊瑤, (서울 : 동서문학사, 1992)
《유서遺書》, 박태옥 저, 서만득 역, (서울 : 독서당, 1995)
《은잔화》, 경요瓊瑤 저, 김은신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2.6)
《은하수星河》, 경요瓊瑤 저, 김은신 역, (서울: 모아, 1992.7)
《음식남녀》, 이안 저, 이희주 옮김, (서울 : 책과몽상, 1995)
《이역血戰異域11年》, 박양 저, 강경범 옮김, (서울 : 시대문학사, 1991)
《이자성李自成》(전2책), 요설은姚雪垠 저, (서울 : 동광출판사, 1990)
《이혼》, 노신魯迅 저, 김남주 역 (서울 : 도서출판 눈, 1993.10)
《인간. 아, 인간!人啊,人!》, 다이호우잉戴厚英 저, 서정태 옮김, (부산 : 열음사, 1989)
《잃어버린 영원迷失的永恒》, 황역, 임홍빈 역, (서울 : 동아일보사, 1997)
《임해설원林海雪原》, 곡파曲波 저, 김학송 역, (서울 : 엔터, 1995)
《잉얼英兒》, 꾸칭顧城/雷米 지음, 김윤진 옮김, (서울 : 실천문학, 1997)
《자귀나무綠花樹》, 장현량張賢亮 지음, 박재연 역, (서울 : 한겨레, 1988.12)
《자야子夜》(상,하), 모순茅盾 저, 김하림 역, (서울 : 한울, 1986.4)
《장자莊子傳》, 왕신민王新民 저, 김미옥 옮김, (서울 : 여강출판사, 1993)
《장자莊子傳》, 왕신민王新民 저, 이선옥 옮김, (서울 : 범인문화사, 1995)
《전사》(상,하), 杜鵬程 저, (서울 : 일송정, 1989)
《절망한 나에게 그들은 적이라 불렀다》(상,하), 쨩니엔鄭念 저, 문대찬/이현지 옮김, (서울 : 나루, 1993)
《정녀貞女》, 고화古華, 이영구 역, (서울 : 우아당, 1990)
《젖은 눈, 슬픈 새》, 경요瓊瑤 저, 박정미 역, (서울 : 창현문화사, 1992.5)
《제3의 여인》, 경요瓊瑤 저, 박지향 역, (서울 : 범한, 1987)
《조각으로 채운 사랑》, 경요瓊瑤 저, 윤시원 역, (서울 : 흥원, 1992.8)
《조바심浮躁》, 가평요賈平凹, 오세경 역, (서울 : 제삼기획, 1994)
《조숙죽 녀자》, 박태옥 저, 노중평 옮김, (서울 : 늘푸른기획, 1993)
《조속한 연애早安!朋友》, 장현량張賢亮 저, 강철일 역, (서울 : 영웅출판사, 1989)
《죽발豕蹄 : 곱말약의 역사 인물 이야기》, 곱말약郭沫若 지음, 신진호 옮김, (서울 : 사회평론, 1995)
《중이반지》, 심청화 역, (서울 : 타래, 1993)
《죽음보다 더한 사랑》, 경요瓊瑤 지음, 이항규 옮김, (서울 : 보성출판사, 1996)
《중국 교포작가 우수 단편 모음》, 송춘남 리원길 외, (서울 : 훈민정음, 1996.7)
《중국 상인 이야기紅頂商人》, 高陽 저, 김태성 역, (서울 : 오리진, 1997)
《중국 현대소설선》, 위세상魏世祥 외 지음, 이등연 옮김, (서울 : 우아당, 1991)
《중국단편소설집》, 양백화 편역, (서울 : 개벽사, 1929)
《중국현대대소설선》, 김혜준 엮음, (부산 : 부산대 중문과, 1994.3)
《중국현대단편선》, 투선魯迅 외, 류성준 역, (서울 : 해원출판사, 1995)
《중국현대단편소설집》, 이명선 역, (서울 : 서울출판사, 1946)
《중국현대문학산책月夜外》, 바금 외, 윤수영 역, (서울 : 신아사, 1998.6)
《중국현대문학작품선》, 김시준 박운석 역, (서울 : 지식산업사, 1989)
《중국현대문학작품집》(상하), 편집부 편, (서울 : 교보문고, 1997.12)
《진시황제》(상,중,하), 유홍택劉鴻澤 저, 오정운 옮김, (서울 : 해오름, 1994)
《진혼의 통곡소리》, 江浩, 최명희 옮김, (서울 : 문원북, 1997)
《징기스칸 일족》(1-4), 진무신 지음, 서석연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7)
《짜사랑苦戀》, 권덕주 역, (서울 : 문조사, 1987)
《참말로 그리운 사람에게》, 경요瓊瑤 저, 왕화원 역, (서울 : 문원북, 1992)
《참말로 그리운 사람에게》, 경요瓊瑤 저, 왕화원 역, (서울 : 참빛출판사, 1992.9)

- 《창밖의 미소》, 경요瓊瑤, (서울 : 청목사, 1988)
- 《천노天怒》(1-3), 천광陳放 지음, 박승준 옮김, (서울 : 조선일보사, 1997)
- 《천사는 죽지 않는다苦界》, 홍릉 저, 김택원 옮김, (서울 : 크리, 1994)
- 《천안문 광장天安門廣場》, 유아주劉亞洲 지음, 박재연 역, (서울 : 동아일보사, 1990.4)
- 《천재몽天才夢》, 張愛玲 지음, 최장학 옮김, (서울 : 문진문화사, 1949)
- 《첫사랑의 느낌》, 호호, (서울 : 나라원, 1994)
- 《청일전쟁》(상,중,하), 진무신 지음, 조약욱 역, (서울 : 우석, 1995)
- 《초승달 외月牙兒》, 노사老舍 외, 허세욱 외 옮김, (서울 : 삼성미술문화재단, 1987)
- 《추운 밤/동터오는 강변 외寒夜/黎明的河邊》 중국현대문학전집 7, 바진巴金/권칭峻靑 지음, 김하림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 《칠흙같이 어두운 밤도子夜》, 마오둔茅盾 지음, 김하림 옮김, (서울 : 한울, 1986)
- 《침몰沈淪》, 옥달부郁達夫, (서울 : 교육문화사, 1989)
- 《칭기즈칸》(1-2), 張鳳洪, 정충제 역, (서울 : 태광문화사, 1996)
- 《칭기즈칸》(1-2), 張鳳洪, 정충제 역, (서울 : 중앙M&B, 1995)
- 《칸의 제국》, 엽동 저, 김형기/오성기 역, (서울 : 문원북, 1998)
- 《타락沈淪》, 위다푸郁達夫, (서울 : 한국외대출판부, 1999)
- 《태양은 상간하에 비친다太陽照在桑幹河上》 중국현대문학전집 8, 덩링丁玲 지음, 노경희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 《텐진의 아이들天津的孩子》, 커옌柯岩 저, 김용표 역, (서울 : 장원출판사, 1989)
- 《파라독스 중국우화》, 루선魯迅 외 지음, 이효림 역, (서울 : 정신세계사, 1992)
- 《팔월의 향촌/삶과 죽음의 자리八月的鄉村/生死場》 중국현대문학전집 4, 샤오롄蕭軍/샤오홍蕭紅 지음, 서의영/원종례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 《팔월의 향촌八月的鄉村》, 소군蕭軍 지음, 박재연 옮김, (서울 : 백산서당, 1987.6)
- 《폐도廢都》(상,중,하), 賈平凹 지음, 박하정 옮김, (서울 : 일요신문사, 1994)
- 《포위된 성圍城》, 전중서錢鍾書 저, 오윤숙 역, (서울 : 실록, 1994)
- 《폭풍취우暴風驟雨》(상,하), 주립파周立波, 이육연 책임감역, (서울 : 논장, 1991)
- 《풍경 외》, 옥달부郁達夫 외 저, 박수인 외 옮김, (서울 : 삼성미술문화재단, 1987)
- 《풍루안風淚眼》, 충위이시從維熙 저, 김월성 역, (서울 : 강천, 1993)
- 《피어라 들꽃青春之歌》(상,하), 양말楊沫 지음, 박재연 옮김, (서울 : 지양사, 1987-88)
- 《피의 제국》(1,2), 섭동, 김형기 오승원 옮김, (서울 : 문원북, 1996)
- 《핏빛 노을血色黃昏》(전3권), 노귀老鬼 저, 전성자 외 역, (서울 : 금강서원, 1993.1)
- 《하늘의 발자국 소리空中的足音》, 다이호우잉戴厚英 저, 오세경/김경림 역, (서울 : 풀빛, 1992.8)
- 《하변초》, 경요瓊瑤, (서울 : 가람문화사, 1992)
- 《하얀 면사포》, 경요瓊瑤 저, 조희경 역, (서울: 도서출판 섭, 1993.12)
- 《하얀 민들레》(1-2), 경요瓊瑤, 유전귀 역, (서울 : 다솜미디어, 1992)
- 《한 줄기 사랑의 빛을 찾아서女強人》, 주수연朱秀娟 지음, 박하정 옮김, (서울 : 문조사, 1989.7)
- 《햇빛 우정 달빛 사랑》(상,하), 장지로 저, 김찬년 역, (서울 : 글나루, 1995)
- 《행운초幸運草》, 경요瓊瑤 저, 김은신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2.7)
- 《허공의 발자국 소리空中的足音》, 다이호우잉戴厚英 저, 조영현 역, (서울 : 창, 1992.8)
- 《허무와 그의 딸들許茂與他的女兒們》 중국현대문학전집 14, 조우커친周克芹 지음, 김광영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 《허삼관 매혈기》, 위화余華 지음, 최용만 옮김, (서울 : 푸른숲, 1999.2)
- 《혁명가의 생애》, 바金, 이하유 역, (서울 : 애미사, 1949)
- 《현대중국작가 단편 모음》, 김종태 역, 한국소설가협회 편 (서울 : 행림출판사, 1982)
- 《호루라기를 부는 장자故事新編》, 魯迅 지음, 유세중 옮김, (서울 : 우리교육, 1995)
- 《호설암胡雪巖》, 고양高陽 지음, 김태성 옮김, (서울 : 오리진, 1995)
- 《홍등/1934년의 도망妻妾成群/1934년의逃亡》, 소동蘇童 저, 최현 조지운 역, (서울 : 박우사, 1993)
- 《홍등妻妾成群》, 소동蘇童 저, 윤정삼 역, (서울 : 오늘, 1992.9)
- 《홍암紅岩》 중국현대문학전집 9, 뤼광빈羅廣斌/양이엔楊益言 지음, 박운석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 《화선火船/貞女/小城之戀》, 위세상魏世祥/고화古華/왕안억王安憶 지음, 이영구/이등연 옮김, (서울 : 우아당, 1990)
- 《환상속에 피는 꽃》, 경요瓊瑤, 이광일 옮김, (서울 : 서원, 1989)
- 《황금시대黃金時代》 왕샤오보王小波 저, 손인숙 역, (서울 : 한국문원, 2000)
- 《황청건 사람들》(상,하), 趙大年 陳建功, 홍광훈 역, (서울 : 동아출판사, 1994)
- 《황하는 동쪽으로 흐른다穆斯林的葬禮》(상,하), 곽달霍達 저, 김주영 역, (서울 : 전예원, 1992.8)
- 《황하의 노을圍城》, 전중서錢鍾書 저, 이해란 역, (서울 : 황제출판사, 1993)
- 《황하의 아들河的子孫》, 장현량張賢亮, 박재연 옮김, (서울 : 들꽃세상, 1990.12)
- 《황화黃禍》(1-4), 바오미保密 저, 유전귀 역, (서울 : 영웅, 1992.6)
- 《회의》, 백원柏原 지음, 장지민 역, (서울 : 문학과사상사, 1990)
- 《후서유기》, (1-2), 이원길 편역, (서울 : 신원, 2000.07.20)
- 《흑설黑的雪》, 리우형劉恒, (서울 : 청맥, 1994)

6-3 한글번역판 중국 현대산문 작품

- 《검은 눈 : 중국군 한국전쟁 참전비시黑雪》, 葉雨蒙, 안몽필 옮김, (서울 : 행림출판, 1991)
- 《경요 - 나의 이야기》, 경요瓊瑤 저, 이상훈 옮김, (서울 : 빛샘, 1992)
- 《곽말약 자서전 : 홍파곡》, 郭沫若 지음, 박정일/정재진 공역, (서울 : 일월서각, 1994)
- 《곽말약 자서전(1) 소년시절》, 곽말약, 한국선 옮김, (서울 : 일월서각, 1990)
- 《곽말약 자서전(2) 학생시절》, 곽말약, 한국선 옮김, (서울 : 일월서각, 1990)
- 《곽말약 자서전(3) 혁명춘추》, 곽말약, 한국선 옮김, (서울 : 일월서각, 1990)
- 《곽말약 자서전(4) 홍파곡》, 곽말약, 한국선 옮김, (서울 : 일월서각, 1990)
- 《구린내나는 아홉 번째 نوم : 진술한 문화혁명 이야기焚心煮骨的日子》, 왕시옌王西彦 지음, 김정행 옮김, (서울 : 동과서, 1997)
- 《귀여운 여자라는 말보다 지혜로운 여자라는 말을 듣고 싶다》, 오메이신 저, 남여명 역, (서울 : 서연, 1993)
- 《그대 죽음을 슬퍼하니》, 魯迅, (서울 : 책이있는풍경, 1994)
- 《그의 죽음을 슬퍼하다》, 魯迅, 박성순 역, (서울 : 힘출판사, 1994)
- 《깨우침》, 임어당林語堂, (서울 : 자유문학사, 1987)
- 《꽃피문학花邊文學》, 노신魯迅 저, 유병태 역, (서울 : 지영사, 1999.10)
- 《끝난 곳에서 길은 시작되고野草/熱風》, 노신魯迅, 김원중 옮김, (서울 : 현대문화센터, 1991.12)
- 《나를 사랑한 작은 절망》, 루쉰魯迅, 김찬연 옮김, (서울 : 이가출판사, 1998)
-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지아오보, (서울 : 뜨란, 2000)
- 《남자, 하루에 백 번 싸운다》, 곽말약郭沫若, 임종삼 역, (서울 : 동아서원, 1986)
- 《내 멋대로 산다》, 황밍지옌, (서울 : 영미미디어, 1999)
- 《내 영혼 대륙에 묻어鄧中夏傳》, 전소혜錢小惠 지음, 이승민 옮김, (서울 : 백산서당, 1986)
- 《내일에도 우리가 같이 있다면》, 곽복록, (서울 : 세종출판사, 1989)
- 《내일을 살아가는 이야기》, 리쥘탕 저, 강옥자 역, (서울 : 깊이와 넓이, 1993)
- 《냉철한 자기 성찰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지혜》, 여곤, (서울 : 삼익미디어, 1997)
- 《魯迅선생님兩地書》, 魯迅 지음, 박병태 역, (서울 : 청사, 1983)
- 《뇌봉》, 최성만 편역, (서울 : 실천문학사, 1993)
- 《당신은 나 없이 살수 있나요》(1-3), 삼모三毛 저, 문형렬 편역, (서울 : 유정, 1994)
- 《대륙의 눈물》(1-2), 우닝룬 저, 심재석 역, (서울 : 고려원, 1995)
- 《뒷모습背影》, 朱自淸, 허세욱 역, (서울 : 범우사, 1976)
-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도 365》, 덩밍다오, 김희균 역, (서울 : 흥익출판사, 1995)
- 《마음의 몸부림》, 은지, (서울 : 학고방, 1991)

- 《방관자를 꾸짖는다》, 毛澤東 외, 이화섭 편역, (서울 : 춘추원, 1989)
《벚꽃, 바다에 지다》, 여나, (서울 : 우신사, 1984)
《부의》, 아이신취에루어, (서울 : 학사원, 1999.10.30)
《北京幽憤 -- 중공 여대생의 일기》, 閻마리아 저, 박경목 역, (서울 : 합동통신사, 단기4288)
《북경의 황혼》, 劉紹棠 저, 이상개 역, (서울 : 중앙문화사, 단기 4288)
《비오는 날의 책》, 루선 외, 임찬민 역, (서울 : 당그래, 1995.7)
《사랑받는 여자 인정받는 여자의 조건》, 오메이신 저, 이옥선 역, (서울 : 정민미디어, 1993)
《사랑의 계절에 너를 만나》, 시무룽席慕蓉, 김학송 옮김, (서울 : 책과몽상, 1995)
《사랑의 사계》(1-3), 삼모三毛, 문형렬 역, (서울 : 유정, 1996)
《사랑의 형이상학》, 암정관, (서울 : 명문당, 1979)
《사랑이 너에게로》, 삼모三毛, 박희준 역, (서울 : 미완, 1992)
《사랑해요 워 아줌마》(상,하), 루시칭, (서울 : 사람들, 1996)
《사막에서 온 아줌마沙哈拉的故事》, 삼모三毛 저, 구순정 역, (서울 : 둔평, 1992)
《사막에서 온 아줌마沙哈拉的故事》, 삼모三毛 저, 신이섭 역, (서울 : 둔평, 1992.7)
《사막의 정복자 버드나무》, 춘린 외 저, 국제문화 역, (서울 : 웅진출판, 1993.1)
《사하라 이야기沙哈拉的故事》, 삼모三毛 저, 구순정 역, (서울 : 둔평, 1991)
《사하라 이야기沙哈拉的故事》, 삼모三毛 저, 구순정 옮김, (서울 : 증명, 1999)
《삶을 다듬는 일곱가지 지혜》, 공건, (서울 : 성균관, 1996)
《삼민주의·호적문선》, 김학주 역, (서울 : 경지사, 1968)
《선월船月 : 김구 선생의 嘉興 피난기》, 하련생夏釐生, 강영매 옮김, (서울 : 범우사, 2000.1)
《세상을 사는 공자의 지혜》(1-4), 공건孔健 저, 이원길 역, (서울 : 신원문화사, 1998)
《아버지의 뒷모습 (외)》, 주자청朱自淸/육달부郁達夫 지음, 허세욱 유희주 옮김, (서울 : 범우사, 1999.2)
《아버지의 뒷모습 / 입추날 밤》, 주자청朱自淸/육달부郁達夫 지음, 허세욱 유희주 역, (서울 : 범우사, 1994)
《아버지의 뒷모습》, 주자청朱自淸 지음, 박하정 옮김, (서울 : 태학사, 2000.5)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朝花夕拾》, 노신魯迅, 이옥연 편역, (서울 : 창, 1991.3)
《아침은 너무 늦다》, 郭沫若 魯迅 巴金 등 저, 최용국 편역, (서울 : 도서출판 창, 1995)
《양귀비》, 南宮搏 저, 우현민 역, (서울 : 정음사, 1958)
《어느 영화감독의 청춘 -- 나의 흥위병 시절》, 陳凱歌 저, 이근호 역, (서울 : 푸른산, 1991)
《역사소품》, 郭沫若 저, 김승일 역, (서울 : 범우사, 1994)
《웃음 속에 담긴 지혜》, 이효립 엮음, (서울 : 여명, 1996)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임어당, 김학주 역, (서울 : 태양문화사, 1977)
《인간이여, 인간이여》, 은지, (서울 : 학교방, 1991)
《젊은이에게 주는 글》, 林語堂 저, 왕준헌 역, (서울 : 효종, 1984)
《종합병원 24시實習醫師手記》, 왕위지아 지음, 김영수 옮김, (서울 : 서지원, 1994)
《중국차 향기담은 77편의 수필》, 朱自淸 외 76인 지음, 이수웅 옮김, (서울 : 지성사, 1994)
《중국현대문학산문·산문》, 김혜준 편, (부산 : 부산대 중문과, 1991)
《중국현대산문선》, 김시준, (서울 : 신아사, 1993)
《질풍이 하늘을 감돌아》, 루신魯迅, 북경민족출판사 옮김, (서울 : 마루, 1993.10)
《천안문 강좌 -- 생활인의 지혜燕山夜話》, 馬南邨 저, 박재연 역, (서울 : 이땅, 1988.12)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거라魯迅書翰選/魯迅書信集》, 노신魯迅, 유세중 역, (서울 : 창, 1991.8)
《춤추는 가시버시》, 주덕용, (서울 : 당그래, 1990)
《취하고 싶다》, 안곤양, (서울 : 당그래, 1992)
《투창과 비수》, 루선, 유세중 전형준 편역, (서울 : 솔, 1997.9)
《한 노동자의 수기 我把一切向給黨》 중국현대문학전집 10, 우원두우吳運鐸 외, 유중하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한 젊은 유학자의 초상》, 뚜웨이밍杜維明 저, 권이숙 역, (서울 : 1995),

- 《헤이 키드 닥터》, 왕위지아, (서울 : 지우, 1994.4)
《호적, 사십자술 四十自述》, 차주환 역주, (서울 : 을유문화사, 1973)
《호적문선》, 민두기 편역, (서울 : 삼성문고, 1974)
《흐느끼는 낙타哭泣的駱駝》, 삼모三毛 著, 신이섭 역, (서울 : 돈평, 1992.9)
- 《공자의 사상》, 임어당林語堂 著, 민병산 역, (서울 : 현암사, 1969)
《공자의 사상》, 임어당林語堂 著, 민병산 역, (서울 : 현암사, 1974)
《그는 누구인가》, 임어당林語堂 著, 진영희 역, (서울 : 지식산업사, 1990)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이상각 엮음, (서울 : 문일, 1998)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이상각 엮음, (서울 : 시가 있는 마을, 1998)
《나의 조국 나의 국민My Country and my People》, 임어당林語堂 著, 배한림 역, (서울 : 아카데미, 1980)
《내 나라 내 민족My Country and my People》, 임어당林語堂 著, 안동민 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71)
- 《내가 건넌 다리는 너희들이 걸어온 길보다 길다》, 임어당林語堂, (서울 : 서원, 1997)
《대륙의 하늘을 바라보며》, 임어당林語堂, (서울 : 인경사,)
《동서양의 사상과 종교를 찾아서》, 임어당林語堂 著, 김학주 역, (서울 : 명문당, 1998)
《林語堂 명문선》, 정범진 편역, (서울 : 박영사, 1974)
《林語堂 수상록》, 성의제 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80.11)
《林語堂 수필집》, 임어당林語堂 著, 임연 역, (서울 : 서원, 1997)
《林語堂 수필집》, 임어당林語堂 著, 정동훈 역, (서울 : 청산출판사, 1961)
《林語堂 수필집》, 임어당林語堂, 김신행 역, (서울 : 입문사, 1960)
《林語堂 에세이션》, 임어당林語堂, 윤영춘 역, (서울 : 서문당, 1977)
《林語堂 인생론》, 임어당林語堂 著, 김동사 역, (서울 : 내외신서, 1981)
《林語堂 전집》(1-5), 임어당林語堂, 조영기 역, (서울 : 영일출판사, 1979)
《林語堂 전집》(1-8), 임어당林語堂, 조영기 역, (서울 : 우리들사, 1976)
《林語堂 처세론》, 임어당林語堂, (서울 : 집문당, 1989)
《林語堂의 에세이 - 공자》, 임어당林語堂 著, 민내산 역, (서울 : 현암사, 1970)
《林語堂의 웃음 - 중국인의 지혜》, 임어당林語堂 著, 이평길 역, (부산 : 선영사, 1997)
《마른잎은 굴러도 대지는 살아있다》, 임어당林語堂 著, 김종석 역, (서울 : 삼한출판, 1988)
《마른잎은 굴러도 대지는 살아있다》, 임어당林語堂 著, 민중서 역, (서울 : 체문)
《마른잎은 굴러도 대지는 살아있다》, 임어당林語堂 著, 전수광 역, (서울 : 동서출판사, 1968)
《만만디 만만디》, 임어당林語堂 著, 조양제 역, (서울 : 덕성문화사, 1991)
《무관심》, 임어당林語堂 著, 송상변 역, (서울 : 한림사, 1961)
《北京好日》, 임어당林語堂 著, 이성주 역, (서울 : 용성출판, 1986)
《붉은 수염의 야망》, 임어당林語堂 著, 김광열 역, (서울 : 토반기획, 1986)
《생각의 변》, 임어당林語堂 著, (서울 : 범우사, 1976)
-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김동철 역, (서울 : 철리문화사, 1961)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김병철 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70)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김병철 옮김, (서울 : 범우사, 1992)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김종관 역, (서울 : 삼덕출판사, 1979)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김종관 역, (서울 : 삼성사, 1976)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노태준 역, (서울 : 서한사, 1983)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노태준 역, (서울 : 청산문화사, 1974)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문상득 역, (서울 : 민성사, 1994)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著, 문상득 역, (서울 : 상서각, 1981)

-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박일충 역, (서울 : 동서문화사, 1997)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박일충 역, (서울 : 문공사, 1982)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박일충 역, (서울 : 학원출판공사, 1983)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박재경 역, (서울 : 문음사, 1968)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안동민 역, (서울 : 문예, 1969)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이성호 역, (서울 : 범조사, 1975)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이재현 역, (서울 : 삼중당, 1975)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이종렬 역, (서울 : 삼문사, 1959)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이종렬 역, (서울 : 학우사, 1955)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전희직 역, (서울 : 혜원출판사, 1994)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정동훈 역, (서울 : 청산문화사, 1968)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지경자 역, (서울 : 흥신문화사, 1987)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임어당林語堂 저, 홍순범 역, (서울 : 보경, 1974)
 《생활인의 철학》, 임어당林語堂 저, 이문희 역, (서울 : 금성출판사, 1989)
 《시공을 넘어서》, 임어당林語堂 저, 윤영춘 역, (서울 : 중앙출판공사, 1972)
 《식심 수필집》, 임어당林語堂 저, 정동훈 역, (서울 : 청산문화사, 1962)
 《신판 생활의 발견》, 임어당林語堂 저, 안동민 역, (서울 : 문예출판사, 1968)
 《양심》, 임어당林語堂 저, 정동운 역, (서울 : 청산문화사, 1962)
 《얼굴이란 무엇인가》, 임어당林語堂, 다나번역실 역, (서울 : 다나, 1985)
 《여성에게 보내는 고언》, 임어당林語堂 저, 한아름 역, (서울 : 한아름, 1993)
 《우리를 행복케 하는 것은》, 임어당林語堂 외, (서울 : 성인문화사, 1988)
 《인생과 생활 : 생활의 발견》, 임어당林語堂 저, (서울 : 대호출판사, 1978)
 《인생과 생활》, 임어당林語堂 저, (서울 : 삼정출판사, 1970)
 《인생과 생활》, 임어당林語堂 저, 한아름 역, (서울 : 한아름, 1993)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임어당林語堂 저, 임춘식 역, (서울 : 백양, 1987)
 《인생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임어당林語堂 저, 노태준 역, (서울 : 진화당, 1986)
 《잠자는 사자》, 임어당林語堂 저, 조영기 역, (서울 : 경호, 1981)
 《장자가 노자를 이야기한다》, 임어당林語堂 저, 장순용 역, (서울 : 자작나무, 1997)
 《중국, 중국인*My Country and my People*》, 임어당林語堂 지음, 신해진 옮김, (서울 : 장락, 1995)
 《중국인》, 임어당林語堂 저, 배한림 역, (서울 : 아카데미, 1979)
 《진실한 삶을 위한 생활에세이》, 임어당林語堂 저, 조양제 역, (서울 : 덕성문화사, 1990)
 《참인생 참사랑 참예술》, 임어당林語堂 저, 이성주 역, (서울 : 용성출판사, 1985)
 《처세론》, 임어당林語堂 저, 김기덕 역, (서울 : 집문당, 1974)
 《처세론》, 임어당林語堂 저, 이정기 역, (서울 : 보경출판사, 1974)
 《폭풍속의 나뭇잎*A Leaf in the Storm*》, 임어당林語堂 저, 이명규 역, (서울 : 단기 4289)

6-4 한글번역판 중국 현대시 작품

- 《걸어온 길 2만리 -- 모택동 시집》, 이주로 역, (서울 : 실천문화사, 1989)
 《구백사람 -- 艾靑의 옥중시》, 艾靑, 유성준 옮김, (서울 : 한울, 1988.7)
 《기뻐 웃는 불꽃이여艾靑詩選》, 艾靑, 박재연 역, (서울 : 한겨레, 1988)
 《나는 제멋대로야 -- 꾸칭시선집》, 꾸칭顧城, 김태성 옮김, (서울 : 실천문학, 1997.6)
 《난 당신에게 이유를 말하진 않으렵니다》, 수팅舒婷 외저, 정우광 편역, (서울 : 장백, 1989.12)
 《들판에 불을 놓아 -- 艾靑 시선》, 유성준 역, (서울 : 한울, 1986.4)
 《들풀野草》, 루쉰魯迅, 유세중 옮김, (서울 : 솔출판사, 1996.3)
 《林煥彰詩選》, 김춘성 역, (서울 : 하나, 1986)

- 《毛澤東 시선》, 이수웅 역, (서울 : 선경도서출판사, 1989)
《毛澤東 시집》, 毛澤東, 유진성 옮겨엮음, (서울 : 문원북, 2000.6.)
《별들은 증거를 댈 것이다》, 북도北島 편, (서울 : 쑥맥, 1995)
《北京의 아침 -- 艾靑의 시》, 유성준 역, (부산 : 열음사, 1990.4)
《빼이따오의 시와 시론北島詩選》, 빼이따오北島 저, 정우광 역, (서울 : 고려원, 1995.9)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 김학송/최용국 옮김, (서울 : 소담출판사, 1995)
《아침은 너무 늦다》, 광말약, 최용국 역, (서울 : 창, 1995)
《오천년의 사랑 -- 푸텐린시집五千年的情愛》, 푸텐린傅天琳 지음, 김운용 역, 허세욱 감수, (서울 : 미리내, 1996.9)
《중공현대대표시선》(1,2), 바이화白樺 등 저, 허세욱 역, (서울 : 전예원, 1987)
《중국 현대명시선》(1,2), 허세욱 역주, (서울 : 혜원출판사, 1990.3)
《중국 현대시선》, 허세욱 편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76)
《중국의 땅에 눈이 내리고》, 艾靑 저, 전형준 역, (서울 : 한마당, 1986)
《파파야 꽃이 피었다》, 천치엔우陳千武, 김상호 역, (서울 : 서문당, 1996)
《현대대표시인선집》 중국현대문학전집 19, 아이칭艾靑 외, 허세욱/유성준/성민엽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현대중국시선》, 윤영춘, (서울 : 청년사, 1947)
《현대중국시선》, 하정옥 역주, (서울 : 민음사, 1975)

6-5 한글번역판 중국 현대극 작품

- 《담검편膽劍篇》, 우시지 외, 김덕환 역, (서울 : 문영사, 2000)
《자소自梳》, 소당 각본, 한명준 편역, (서울 : 대산, 1997)
《뇌우/차집雷雨/茶館》 중국현대문학전집 18, 차오위曹禺/라오서老舍 지음, 김중현/오수경 옮김, (서울 : 중앙일보사, 1989)
《뇌우雷雨》, 曹禺, 한상덕 역, (서울 : 한국문화사, 1996)
《원야原野》, 曹禺, 한상덕 역, (서울 : 한국문화사, 1996)
《일출日出》, 曹禺, 한상덕 역, (서울 : 한국문화사, 1996)

中國現代文學與韓文翻譯

金會峻

中文提要

對中國現代文學作品及理論著作的韓文翻譯至今已有**80**年的歷史了，儘管這期間也曾出現過幾次低潮，但近來的發展態勢相當活躍。但是，到目前為止無論是在數量方面還是在翻譯水平方面，都還不能說讓人十分滿意，更大的發展需要我們學者專家為此作出不懈的努力。

在此文中，筆者參考自己所編的各種目錄考察了與中國現代文學有關的理論著述及作品的韓文翻譯出版情況，并通過對一部分譯文進行互相比較指出了實際翻譯工作中出現的各種問題，然後闡述了自己對中國現代文學翻譯的如下幾點建議。

在作品的翻譯方面還存在着許多問題，要想解決這些問題，僅僅依靠出版社和譯者是遠遠不夠的，而要依靠學術界共同的努力。例如：將推薦的有翻譯價值的作品制成目錄發表通過多種渠道對有翻譯價值但尚未完成的作品作積極地介紹；學術界與出版社共同合作制定一個系統的翻譯計劃等。另外，政府、公益團體、出版社以及學術界對翻譯工作的認識改變和相互合作自然也非常重要。

積極開展對理論著述的翻譯也是尤為重要的。因為理論方面的著作不僅能夠為學者和中文系的學生提供所需的參考資料，還能夠給普通讀者提供系統的理論知識，同時在作品的篩選方面也能夠提供有益的借鑒。在這里尤其應注意的是理論著作應從一般的概論向專業書籍，從中文書籍向非中文書籍方向擴大發展，實現理論著作的專業化、多樣化。

提高中文系學生的翻譯能力，培養優秀的翻譯人才也是一個相當重要的問題。譯者自身能力的提高和責任心的增強可以避免實際翻譯過程中的許多問題。因此有必要在本科和研究生的課程中開設與翻譯有關的課程或引入培養專門翻譯

人才的教程。

實際翻譯過程中的難點仍然需要學術界的共同努力。如：中文的音譯／意譯／音意譯問題以及中文語音的標記方式等問題都亟待解決。再有應大力倡導開展與翻譯技法有關的研究活動。此外選擇翻譯作品，統一翻譯名稱等大量目錄的完成都需要學術界持久的共同努力。